



#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17  
vol.152



THE TIFFANY® SETTING.  
OVER 130 YEARS OF EXTRAORDINARY.

# BVLGARI

ROMA

#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THE ONLY ANSWER IS YES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ont des Amoureux  
Poetic Complications watch  
white gold, diamonds, "contre-jour" enamel,  
mechanical movement  
with retrograde hours and minutes.



26



24



36

06



- 12 **왜 대중문화 콘텐츠는 판타지로 물들어 가는 걸까?** TV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대중문화 콘텐츠의 판타지 열풍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판타지는 진정한 판타지'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14 **NATURAL HIGH**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다. 우주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표현한 주얼리 컬렉션.
- 16 **DREAMY DIAMOND** 하얀 눈꽃처럼 다이얼과 스트랩에 사뿐히 내려앉은 다이아몬드의 황홀함을 간직한 풀 파베 워치.
- 18 **NIGHT MAGIC** 피부 세포가 재생하는 골든 타임을 위한 나이트 케어 코스메틱.
- 20 **IT TECH** 편리하고 실용적인 신혼 생활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욕심 나는 테크 제품을 모았다.
- 22 **TRAVEL MATE** 럭셔리 트렁크의 진수를 보여줄 6개 브랜드의 여행용 캐리어가 여기 모두 모였다.
- 24 **THE PRECIOUS GIFT** 새로운 출발을 앞둔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사랑을 담아, 섬세한 안목으로 제안하는 예단 백 리스트.
- 26 **THE LOVE WHISPERER** 웨딩에 대한 로맨틱한 판타지를 실현해 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34 **BRILLIANT BEAUTY** 탄력 있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9개의 럭셔리 뷰티 하우스에서 제안하는 웨딩 뷰티 선물 세트.
- 36 **WHITE BLOOM** 봄을 기다리는 샬랭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부들의 워너비 웨딩드레스 컬렉션.
- 44 **PEARLY DREAM** 시간을 초월하는 모던한 아름다움을 자닌, 장인 정신과 창조성이 만들어낸 우아한 펄 컬렉션.
- 45 **THE MAKING OF A LEGEND** 결혼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티파니의 웨딩 링.
- 46 **SUPER MOONWATCH** 현재의 오메가를 존재하게 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Speedmaster Moonwatch)가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았다.
- 47 **THE SPARKLE OF A DIAMOND** 최고의 다이아몬드에 품겨 있는 디자인을 더한,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소개한다.
- 48 **AN ABSOLUTE MASTERPIECE** 숙면을 선사할 시몬스(SIMMONS)의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을 눈여겨보자.
- 50 **A DEEP FOREST** 거칠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따스한 면을 지녀 더욱 기능적인 우디 계열의 딥 퍼퓸 컬렉션.
- 51 **AN ELEGANT FIGURE** 이솝(Aesop)의 스킨케어, 피슬리 씨드 앤 티 옥시던트 페이스 하이드레이팅 크림은 이 독보적인 브랜드를 풍부하게 경험하기에 아주 좋은 선택이다.
- 52 **EDITOR'S PICK** 웨딩 D-day를 위한 에센셜 뷰티 아이템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이 직접 테스트해보았다.
- 53 **REAL EXPERIENCE** 차연박화장품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는 턴오버에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피부 톤·피부결 개선까지 한 번에 케어하는 미러를 에센스를 선보인다.

PRADA



+822 3443 2223 PRADA.COM

# Style 조선일보

Issue.152 February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Jewel BRILLIANT GUARD RINGS

웨딩 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 착용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가드 링.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는 밴드가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플레시 포제션 링 1천2백만원대 **파이어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배드민턴 가드 링 9백만원대, 왕관과 꽃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선 디자인의 코로나 가드 링 4백만원대 모두 **블라자**, 총 1.50캐럿가량의 다이아몬드를 밴드 전체에 세팅한 웨딩 밴드 1천2백만원대 **카르페디에**, 얇고 가는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솔리스트 밴드 링 5백만원대, 7개의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웨어드 세팅 밴드 링 7백30만원대 모두 **타미나**, 밴드 다이아몬드를 패시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한 브릴로네 가드 링 7백20만원대 **타미나**, 에디터 **배이진**

## Beauty PERFECT GROOM

잘 차려입은 턱시도에 매끈한 드레스 수줍은 신고, 여가 때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까지 갖춰야만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사람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다. 자극 없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면도를 도와줄 세이빙 크림부터 칙칙하고 탄력 없는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줄 집중 에이지 세럼, 눈가의 잔주름을 유연하게 케어할 아이크림까지, D-Day를 앞둔 상황을 위해 준비한 그루밍 아이템.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루워시 블랙데이 에이지-달래이 아이 컨센트레이트**는 풍부한 영양을 지닌 발효 블랙데이 균주와 강력한 항산화 생분을 담은 풍부한 크림 질감의 아이크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눈가 피부에 충분한 보습 성분을 전달해 눈가 피부를 한결 유연하게 가꿔준다. 또 콜린 효과로 부기와 눈가의 피로를 빠르게 완화한다(15ml 13만2천원). **다들 소바주 애프터 세이브 밤**은 다량의 베스트셀러 남성 향수인 소바주의 관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시트러스 계열 우디 향을 담은 애프터 세이브 밤이다. 부드럽고 되직한 밤 타입의 제형으로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에 풍부한 보습력을 선사한다(100ml 7만5천원). **윙폼 에이지드 비 크림**은 자연 유래 슈퍼푸드에서 추출한 강력한 항산화와 보습 성분을 담아 피부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크림. 비르민 물기가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발랐을 때 걸쭉하고 끈적임이 없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의 신화 현상을 30% 감소시키고 피부 손실을 17% 줄여준다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있으니 효과 역시 보장된 50ml 7만9천원. **클라린스 엘 리베라이징 젤**은 순화한 효과를 강력한 식물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인타이메징 젤로, 지친 피부에 에너지를 타격을 더해 남성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노화 증상을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촉촉한 젤 타입으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게 흡수되고, 심하게 건조한 부위에 한 번 더 덧바르면 하루 종일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50ml 5만8천원). **이슬 모로칸 네클러 세이빙 루닛**은 면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세이빙을 도와주는 세럼과 세이빙 후 피부에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로션형 한 세트 구성이다. 사용감과 효과도 만족스럽지만, 피부에 남는 따스하고 이국적인 향이 매력적이다(세럼, 로션 각 60ml 10만5천원). 에디터 **권유진**

## Book 행복한 '홈파티'를 위한 스타일링 북 <문스타테이블 홈파티>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일상 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식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수요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 끼를 대강 때우거나 외식으로 해결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식탁을 소중히 보듬고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는 즐거움이 부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잡담'을 둘러싼 이모저모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만한 책이 나왔다. '잡담'을 나눠 먹는 '홈파티' 요리 노하우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의 내공을 한데 녹인 <문스타테이블 홈파티>, 요리 분야 파워인 스타그래머이자 푸드 디렉터로 활약하는 문화정 씨가 쓴 책이다.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장성스레 만든 음식을 지인과 나누는 '홈파티'에서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는 문화정 씨는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한 집밥 레시피와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근사한 테이블 세팅을 선보이면서 팔로어 수만 명과 소통하는 인스타그램 스타로 떠올랐고, 전문 요리 레시피와 푸드 스타일링은 물론 각종 콘셉트 개발 등을 이루는 푸드 디렉터로 거듭난 인물. 현재 '문스타테이블'이라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MBC <인스타워즈>에 요리 스타로 출연했고, TV조선 뉴스 판 '젊은 그대에 주부와 푸드 디렉터의 삶을 병행하는 슈퍼맘'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잡담'을 맛나게 요리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그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봄·여름·가을·겨울에 어울리는 시즌별 메뉴와 친구 초대나 아이, 부모님 생일 파티 등 다양한 대상과 이벤트를 위한 메뉴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가격 1만5천원(다독다독 퍼셉션). 에디터 **고성연**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걸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 Fashion 당신의 하의 슬림 메이트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결혼식의 꽃으로 기억된다면 린제리는 신혼의 달콤한 꿈을 민낯하게 해줄, 로맨틱한 추억이 되어줄 것이다. 평상시 베이식 스타일의 속옷만 고집하던 여성이라도 신혼여행용 린제리만 큼은 과감히 투자하니까. 허니문 린제리의 장식은 역시 로맨틱 무드다. 여기, 특별한 허니문을 위해 **칼빈클라인 언더웨어(Calvin Klein Underwear)**에서 추천하는 '인브레이스 슈미즈 컬렉션' 슬림웨어를 주목해보자. 이는 블랙과 화이트의 절제된 컬러에, 아까와 쇠를 라인 이 황히 비치는 시스루 소재와 레이스 장식을 다한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레이스 사이로 스킨이 은은하게 비치면 더할 나위 없이 섹시하다. 이와 함께 럭셔리하고 관능미를 강조한 디자인이 주목을 이끄는 하이엔드 린제리 브랜드 **리펠라(La Perla)**도 눈여겨보자. 리펠라는 은밀한 영역에 머물렀던 린제리 룩을 '리차르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킨 브랜드. 1954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작은 코르셋 가게에서 시작한 리펠라는 파격적인 비주얼, 독창적인 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필라 레이스, 실크 등의 섬세한 소재와 핸드메이드로 완성한 탁월한 퀄리티가 여성들의 감춰져 있던 욕망을 만족시키고 럭셔리 린제리의 범위를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과감한 린제리를 통해 섹시한 여성로의 변신을 꿈꾼다면, 리펠라와 함께 하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볼 것.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인기 있는 유쾌한 피자파 패션을 소개하는 **슬리피 존스(Sleepy Jones)**를 편집 스타 미야분과 비키를 통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 슬리피 존스는 피카소를 비롯, 많은 아티스트가 작업할 때 수드와 타이틀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수면서 생활하자'를 모토로 2013년 미국에서 론칭한 브랜드다. 리온지 워어, 슬립웨어, 언더웨어를 중심으로 남녀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침대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위한 피자파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지닌 컬렉션이다. 거리에서도 피자파 셔츠에 데님 팬츠를 매치하는 등 피자파 룩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 에디터 **이지연**



# TASAKI



Avenuel World Tower 02.3213.2264 Hyundai Apjujeong 02.3438.6023 \*Hyundai Daegu 053.245.2247 Hyundai Pangyo 031.5170.2182 Hyundai Trade Center 02.3452.5558 Shinsegae Centum City 051.745.1479 Shinsegae Daegu 053.661.6510 Shinsegae Gangnam 02.3479.1232 Shinsegae Gyeonggi 031.695.1927 Shinsegae Main 02.310.1854 www.tasaki.co.kr



Loro Piana

SINCE 1924



스타일링: 유민정, 헤어: 김민정, 메이크업: 김민정, 사진: 김민정

1 가슴 부분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살린, 순백의 우아함을 지니고 있는 웨딩드레스 가격 미정 **이명순 웨딩드레스**. 2 브라운 컬러 그레이드 시크리온보 이는 선글라스 40만원대 **엔포리오 아르마니 by 록스타가 코리아**. 3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을 적용한 아펠 트루스트 브라운슬릿 각 3백60만원대 **루이 비통**. 4 카키색과 우드의 조화로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을 담은 발루 두 향수 50ml 8만9천원 **프라코나르**. 5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의 러브모넬 네크리스 49만원 **골든듀**. 6 클래식한 맛을 더해주는 진주 장식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7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장식 필모스 5백6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8 보라색 감성피플과 블루 베로나 꽃을 메인으로 리듬감 있게 배치한 부케 25만원대 **꽃밭**. 9 로맨틱한 로즈 핑크 컬러를 더한 로즈 컬렉션 73만8천원, 눈꽃 컬렉션 모티브의 인터 컬렉션 브라운슬릿 2백만원대 모두 **핀도라**. 10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예뻐 주얼리를 보관할 수 있는 주얼리 박스 1백50만원 **스마이스**. 11 새틴 소재에 핑크·옐로·그린 컬러의 스와 로브스키로 장식한 주얼 클러치 백, 17X10cm, 5백60만원대 **디올**. 12 사틴스카운 피스텔 핑크 톤의 브라운 백, 35.5X28cm, 1천만원대 **델보**. 13 나비 모티브를 새긴 머 디오브릴 다이얼에 화이트 스트랩을 매치,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드 빌 프레스티지 워치 1천3백만원대 **오메가**.

록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루이 비통 02-3432-1854 샤넬 02-543-870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스마이스 02-310-1693 핀도라 1688-5501 디올 02-3480-0104 델보 02-3449-5916 프라코나르 02-3443-1805 꽃밭 02-794-0993 이명순 웨딩드레스 02-540-5551 오메가 02-511-5797 골든듀 1588-6576

# for her Selection

우아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와 이를 더욱 빛내줄 주얼리, 단아한 자태의 부케까지, 고귀한 오라를 뽐내는 신부를 위한 웨딩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1 사선으로 디자인한 카드 슬링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 카드 지갑 63만원 **로로피아나**. 2 그레이 색상의 실크 보타이 21만원 **황방 음모**. 3 케이스 디자인부터 인덱스 숫자까지 손수하고 질겨진 아름다움을 뽐낸다. 올트라 신 무브먼트 H1950 칼라바를 탑재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슬림 데르메스 에-델 그랑 푸 워치 2천만원대 **에르메스**. 4 남성의 강인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우디 향을 담은, 가죽 보틀 케이스의 다과레벨 라이터 오데토알렛, 125ml, 11만3천원 **존비버투스**. 5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인 로드스터 워치의 파란 공이라 불리는 크라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카브스 링크 902만원대 **카르띠에**. 6 포말한 수트 룩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크라운 모티브 부토나에 63만원 **올레강가버나**. 7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제각각 인한 브라운 색상의 인경 프레임 30만원대 **레이맨 by 루스타카 코리아**. 8 벨벳 타사도 재킷 3백18만원, 블랙 맨츠 70만원대, 화이트 셔츠 72만5천원, 보타이와 카라밴드 세트 42만원 모두 **에르메스**도 제나. 9 여행길에서도 남자의 스타일에 힘을 실어줄, 멋진 블랙 에피자족 소재 캐리어. 37x48cm, 5백10만원대 **루이비통**. 10 페이퍼트에 레이스업 디테일을 더해, 캐주얼과 포멀 룩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레이스업 슈즈 1백만원대 **디올**. 11 면도기와 오소리 털로 만든 수제 브리스토로 구성된 세이빙 세트 63만원대 **트루갯엔필**. 12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한 브리프케이스. 30x40cm, 1백20만원대 **보스 맨**. 13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이자 재즈 작곡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스페셜 에디션 1백21만원 **몽블랑**.

로로피아나 02-546-0615 황방 음모 02-6905-3496 존비버투스 02-3443-1805 카르띠에 1566-7277 올레강가버나 02-3444-0077 루이비통 02-3432-1854 트루갯엔필 02-511-1805 디올 02-3480-0104 보스 맨 02-515-4088 몽블랑 1670-4810 에르메스도 제나 02-6905-4790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에르메스 02-3015-3281

*for him*  
Selection

질제된 맛을 지닌 블랙과 네이비는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한 클래식한 선택이다. 신라의 품격을 높여줄 안정감 있는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사진출처: 몽블랑, 에르메스, 루이비통, 카르띠에, 에피자족, 아메리칸



MaxMara



# 왜 대중문화 콘텐츠는 판타지로 물들어가는 걸까?

대중문화 콘텐츠가 판타지로 물들고 있다. TV 속 세상에서도 극장에서도, 그리고 그 열풍을 이어 서점가에서도 판타지 콘텐츠가 유달리 두각을 나타내는 모양새다. 특히 드라마 세상의 판타지 열기는 유독 뜨겁다. 지난해 가을 만화 주인공이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MBC 드라마 《W》가 화제를 몰고 온 테 이어 3년 전 《별에서 온 그대》에서 외계인을 내세운 박지은 작가는 또 다른 판타지 로맨스 《푸른 바다의 전설》(SBS)에서는 언어를 소재로 삼았고, 명실공히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드라마계 히트 제조기로 자리매김한 김은숙 작가는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최종회에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케이블 드라마 역사를 다시 쓴 도깨비 열풍을 이은 tvN의 금·토극 후속작 《내일 그대와》 역시 지하철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시간 여행자와 그의 아내의 로맨스를 담은 판타지물이고, 배우 이영애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화제가 된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타임 슬립을 소재로 한 작품. 올 초 극장가에서 대박을 터뜨린 테다그 여세를 몰아 서점가에서도 강풍을 일으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역시 판타지 청춘 로맨스물이다. 이처럼 판타지 성향이 짙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강세에 대해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대중심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각박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반대 양상을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배경과 스토리, 캐릭터가 지닌 나머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중에 위로와 대리 만족을 선사한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판타지 콘텐츠의 인기가 단지 현실도 피적인 요소 덕분일까? 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유행인 걸까, 아니면 커다란 흐름인 걸까? 중요한 건 판타지 콘텐츠는 해당 산업의 혁신적인 변모를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비주류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다

문화 콘텐츠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하는 리얼리즘 계열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판타지 계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소설, 영화, 게임 등 요즘 대중문화의 장에서 판타지 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양적으로만 보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노라면 판타지 콘텐츠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각광받은 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우선 영상 매체가 등장하기 전 신화, 전설, 민담의 전통을 계승한 판타지 문화는 인간이 갈망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다뤘기에 그 매력을 인정받았을뿐더러 인기도 누렸지만, 결코 주류로 대접받지는 못했다(특히 서구 세계에서는 이성과 현실의 재현인 미

메시스(mimesis)를 중시한 만큼 많이 평가절하됐다고 《판타지》라는 책의 저자 송태현은 설명한다). 동양 문화권에서도 중국의 《서유기》나 우리나라 《구운몽》, 《전우치전》 등 환상(판타지) 문하기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꽤 있지만, 서구 영향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부상하는 바람에 잘 계승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주로 아동문학으로 인식됐던 판타지 소설의 격을 끌어올리고 독자층을 청소년, 성인으로 확대한 《반지의 제왕》의 J. R. R. 톨킨을 위시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등이 높은 평가와 인기를 동시에 누아졌고, 21세기 들어서는 영화 콘텐츠로도 역이면서 전 세계 대중의 삶에 스며들었다. 장 보드리야르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판타지는 현실 너머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일상과 공존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이자 언어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콘텐츠 자체의 진화와 있었지만 '이성의 힘을 강조한 근대에 대한 회의가 짙게 깔리면서 합리적 이성 너머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통찰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버티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초월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대중 심리를 영리하게 파고든 자본주의적 전략이 대중문화 콘텐츠 세계에서 주효했던 셈이다. 이는 실제보다 더 실감 나게 현실을 그려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시각적 스펙터클을 가능케 한 '컬처 테크놀로지'의 힘

영화는 그 중심에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영화는 판타지를 생생한 '하이퍼 리얼리티'로 나타내는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판타지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미 시각적인 스펙터클의 중요성이 묻어 있다고 한다. 라틴어로 가시화하다, 명백하게 하더라도 단어(phantasticus)가 파생되면서 생겨난 단어여서다. 영화란 시각적 체험이어서일까? 판타지 영화가 영화적 욕망이 가장 잘 발현된 콘텐츠로 부각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터다. 그렇다고는 해도 판타지 영화의 시초는 현란한 스펙터클을 선사할 만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시절까지, 의외로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초는 1902년에 나온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 세계로의 여행(A Trip to the Moon)》이라는 작품으로 사상 최초의 영화이자 리얼리즘 계열의 시작인 루미에르 형제의 《공장 노동자의 퇴근(Workers Leaving the Factory)》보다 7년 늦게 선보였다. 《판타지 영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따르면 이 고전 SF 판타지는 성공작이었고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판타지든 기괴(weird) 영화든 무협 판타지든 하위 장르에 상관없이 기

게임은 물론이고 TV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대중문화 콘텐츠의 판타지 열풍이 심상치 않다. 신화적 상상력의 쾌감 덕분에 부당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판타지로 위로받는다고들 한다. 사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확장하는 판타지는 늘 관심을 끌어왔지만, 이처럼 21세기 들어 판타지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스토리텔링의 진화와 함께 비현실적인 소재로 현실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력에 힘입은 시각적 스펙터클의 미학이 자리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판타지는 진정한 판타지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술력(화면)과 서사가 뒷받침되면 판타지의 흥행 성공 확률은 높았다고. 21세기에 돌입하면서 판타지 영화의 전성시대가 본격 펼쳐진다. 2001년에 《해리 포터》와 《반지와 제왕》이 각각 개봉했고, 《캐리비안의 해적》, 《나니아 연대기》, 《황금나침반》 등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대적으로 새 장을 연 것. 컴퓨터그래픽(CG), 3D 입체 기술 등이 일취월장한 덕에 2010년에는 판타지 영화에 획을 그은 《아바타》가 등장했다. 배우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포착하는 수준까지 가능한 기술인 '이모션 캡처'로 사람을 대신하는 디지털 액터(digital actor)가 더욱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3D 입체 영화 제작을 훨씬 손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촬영 시스템도 개발됐다.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내세우는 블록버스터화 흐름이 거세지면서 판타지 영화는 점점 더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는 스펙터클이 돋보이는 판타지물은 한 문화권에 뿌리를 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가치가 떨어지는 '문화 할인(cultural discount)'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캐릭터 상품, 테마파크 등 다른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원 소스 멀티 유스(OSMU)의 가치도 높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역대 세계 흥행 순위 톱 20 영화에서 판타지물이 아닌 작품은 《타이타닉》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판타지 열풍은 드라마 세상에서도 뜨겁다. 2011년부터 전 세계를 판타지 미드의 매력으로 물들인 《왕좌의 게임》을 비롯해 고전 동화를 끄적낸 살인 사건으로 재해석한 판타지 수사 드라마 《그림형제》,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 서 살아남은 자들의 사투를 그린 판타지 좀비물 《워킹 데드》 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힘일까

동양 문화권에서도 판타지 콘텐츠를 향한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공화국 일본은 판타지의 하위 장르인 SF물로 1960년대 《철완 아톰》부터 시작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담은 《아키라》, 《신세기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들, 《비람계곡의 나우시카》, 《너의 이름은》 같은 감성적 판타지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계속 선보였고, 중국에서는 동양관에서 가장 대중적인 고전 설화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와 무협 판타지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서양의 신화와 요정, 영웅담을 기반으로 한 할리우드발 판타지물에 비하면 아무래도 뛰노는 무대나 '계급' 자체가 달랐고, 장르의 다양성에서도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해 스펙터클을 갖춘 테다 동양의 신비스러운 판타지가 매혹적이었던 장미의 감독의 《와호장룡》은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첫 번째 무협 판타지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멜로와 서사가 절절히 깃든 판타지 영화 《연향나침반》, 그리고

《구미호》나 《여고괴담》 같은 공포 판타지 영화, 납량 특집 드라마 《M》이 인기를 끌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흥행과 호평을 동시에 움켜쥔 작품이 많지는 않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내추럴시티》 등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표방한 SF 판타지물이 잇따라 나왔지만, 아무래도 제작 규모가 뒤처지는 테다 우리 정서에 맞는 심오한 세계관의 부재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그 뒤에 나온 봉준호 감독의 SF 판타지 영화 《괴물》과 최동훈 감독의 코믹 영웅 판타지 영화 《전우치》,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판타지 사극 드라마 《태왕사신기》 정도가 주목할 만한 흥행작이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순수한 로맨스나 우정을 담은 드라마 장르가 한국인의 코드에 잘 맞다는 시각도 있지만 판타지적 소재인 좀비를 다룬 《부산행》의 성공이나 최근 《가려진 시간》,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같은 작품들의 흥행 실패를 보면 역시 예측이 어렵다는 대중문화 콘텐츠 세계에서 확실한 '성공 공식'이란 따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인기 판타지 콘텐츠를 둘러싼 열기에는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분명 있다. 판타지는 현실 세계를 압도할 만큼 충분히 환상적(fantastic)인 오라를 뿜어나와 하지만 '리얼리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스토리텔링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컨대 《왕좌의 게임》은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이 떠오르는, 그래서 판타지의 탈을 쓴 현실이라는 평을 듣는가 하면 《도깨비》는 스타 제작진과 배우들, 비현실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와 세계관이 깃든 판타지가 안겨주는 친밀한 쾌감과 세련된 미장센, 《부산행》, 《밀정》 등을 담당했던 스튜디오가 구현한 CG의 위용이 인기엔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인생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 토종 낭만 설화를 활용했을 뿐 '능력자(도깨비)'를 만나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살짝 비튼 판타지라는 비평을 듣기도 하지만, 이 드라마는 희·비극적 요소를 품고 있고 권선징악의 교훈과 업보, 삶과 죽음을 둘러싼 변화무쌍한 양태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다. 오히려 인간은 정해진 운명의 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다들 생애에서는 잘해낼 수 있다'라고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영리함을 발휘한다. 《너의 이름은》도 어찌 보면 '보디 체인'이라는 소재 자체는 흔하지만 '일본 어디에도 이처럼 황홀한 풍경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밀하고 아름다운 작화 자체가 판타지 수준인 테다 동일본 대지진의 비극을 모티브로 삼되 희망을 전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감대를 낳는다. 예술은 그 자체로 거짓말의 세계이지만 그것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신화적 상상력과 기술력에 힘입은 미학적 역량이 어우러진 판타지의 매력도 결국에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을 선사하는 데 있는 것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진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창문을 빛내는데 데 있지 않을까. **SI** **에디터 고영진**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재비 모티브의 아름다운 스몰로 펜던트, 아름다운 시절의 귀환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은 주얼리다. 3천만원대, 역동적인 날갯짓이 아름다운 사이프러스 스완 링 블랙 사피아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백조 모티브로 우아한 움직임을 강렬한 블랙 사피아어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2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주얼리 디자이너인 엘라니 조르카고폴라스와 팔라바레이션으로 완성한 제품으로, 반으로 자른 진주를 마치 용게구름처럼 배치한 M/G 타사키 마베 진주 브로치, 상징한 크기의 마베 진주를 사용해 영동했다. 5백20만원 **타사키**, 플라타네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텐트 드래곤플라이 브로치 7백50만원대 **타사키**, 밤의 얼굴을 강렬하게 표현한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네크라스,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루블라이트로 강렬한 눈빛을 담았다. 1천9백만원대 **벨가리**, 아름다운 것에 반동적으로 아름다운 벨세 모티브의 호잉 허윈드 슬리퍼 이어링, 왕가롭고 생동력 넘치는 꽃을 사랑하는 벨사의 아름다운 자태를 형상화했다. 피베 다이아몬드와 사피아어를 세팅해 여성스럽다. 5천만원대, 영원을 상징하는 바다거북 모티브의 오닉스 링 핑크 쿼츠 링,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거북 모티브가 정교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킨다. 1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균일하게 크기가 커지는 진주에 옐로 골드를 더해 드라마틱한 형태감을 완성한 M/G 타사키 옐 링 3백50만원대 **타사키**, 자유롭게 노니는 나비의 모습을 표현한 플라잉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라운드와 마구즈 컷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4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브라운 슬릿, 성숙하게 피어나는 장미를 표현했다. 2천1백만원대 **피아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대담한 산악인 모티브를 완성한 카투스드 카브파에 네크라스, 7방향적인 디자인과 볼륨감이 매력적이다. 2천4백만원대, 마치 예술 작품 같은 입체적인 매력이 아름다운 카투스드 카브파에 링, 옐로 골드와 라피스 라줄리를 세팅해 선명한 컬러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모두 **가르피에**, 에디터 **베미진**

타사키 02-547-9488 **피아제** 02-540-2297 **벨가리** 02-2056-0171 **가르피에**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부세론** 070-7500-7282



# Natural high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다. 청명한 하늘을 수놓는 우아한 새의 자태부터 정교하게 피어난 장미의 환상적인 매력까지, 우주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표현한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강남구 압구정로 458 - SEOUL  
02. 514. 0900



moncler.com



LIU BOLIN PERFORMING FOR MONCLER



# dreamy Diamond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하얀 눈꽃처럼 다이얼과 스트랩에 사뿐히 내려앉은 다이아몬드의 황홀함을 간직한 풀 파베 위치의 향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론) **블가리 루체아 워치**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luce'와 라틴어 'lux'를 합성해 이름 지은 이 여성용 시계는 빛살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다이얼 패턴, 둥근 헤일로 모티브의 원형 케이스, 불가리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세르페네티의 분절 구조를 반영한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33mm의 화이트 골드 다이얼 위에 다이아몬드를 흠뻑뿌려놓은 듯 빼곡하게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7천만원대. 문의 02-2056-0172

**워블로 클래식 퓨전 킹 골드 풀 파베 워치** 30년 전 첫선을 보인 워블로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느낌을 조화해 보다 파워풀한 이미지로 탄생한 제품으로, 케이스에는 총 0.59캐럿 1백47개의 다이아몬드를, 다이얼에는 총 1.13캐럿 2백74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는 총 0.75캐럿에 달하는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크도의 화려함을 더했다. 18K 골드에 5%의 팔라듐을 혼합한 독자적인 킹 골드 소재를 사용했으며, 블랙 라커 위에 블랙 엘라스테이커 가죽을 덧댄 스트랩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 4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카르네에 안노즈 하이 주얼리 워치** 블랙 레카와 다이아몬드가 대조를 이루며 나선의 소용돌이를 형상화한 오벌형 워치.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 시각적 유희를 선사하는 이 특별한 워치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면모를 모두 갖췄다. 케이스, 다이얼에는 물론 브레이슬릿까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타피니 카르네 워치** 미국 재즈 시대의 화려한 이브닝 시계를 연상시키며 한층 진화한 현대적인 타원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여성 워치. 타피니 다이아몬드의 묵보적인 광채를 담은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타원형 케이스에 세팅했으며, 닳아터진 다이얼에는 2백94개의 다이아몬드를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빼곡하게 세팅해 최상의 화려함과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준다. 2천9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빈들리프 이젤 힐 브레이슬릿 워치** 38mm의 화이트 골드 라운드 케이스와 베젤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 줄로 파베 세팅하고, 브레이슬릿에도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채를 자랑하는 여성 워치. 케이스 측면에 하우스의 시그니처를 이탤리언어로 인그레이빙했으며, 360도 유연하게 회전하는 시링, 핸즈, 부, 견장을 상징하는 네 일 클로버 모티브의 침이 포인트다. 가격 미정. 문의 00798-852-16123

**파이에 리얼라이프 길라 워치** 리얼라이프라는 이름만큼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채로 시선을 사로잡는 풀 파베 여성 워치다. 32mm의 라운드 케이스를 유연하게 감싼 우아한 곡선 디자인의 베젤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무려 7백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로 전체를 세팅해 화려함의 극치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0-2297

**블링킹 달마티 스텔레온 8 데이** 베젤과 리그, 크라운, 그리고 오프워크 장식의 스텔레온 무브먼트에 총 1.27캐럿에 이르는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해 무브먼트 자체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킨 38mm의 레드 골드 스텔레온 워치. 투명한 다이얼과 백 케이스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무브먼트에는 경이로운 만큼 섬세한 인그레이빙을 더했다. 자체 제작한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333SQ를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0-5295

**브라게 클래식 8788 루네이즈 워치** 매끈한 에펠-레 다이얼이 돋보이는 36mm의 우아한 로즈 골드 케이스에 총 0.7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달. 12시 방향에 문패이 조각,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하며 긴 바늘이 가리키는 파워 리저브는 가득성이 뛰어난고 우아한 풍격을 더한다. 둥근 클래식에서 가장 얇은 3.01mm의 슬프와인딩 무브먼트인 591 DRL을 채택했고,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3천9백만원대. 문의 02-3479-1008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지금껏 본 적 없던 럭셔리

마침내 14년 만에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느껴본 적도 없던  
럭셔리 대형세단의 귀환

그래서 유일한  
There's nothing like it

ALL NEW  
**LINCOLN CONTINENTAL**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일산 03)913-2200	분당 03)714-2004	수원 03)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광주 062)515-1010	전주 063)273-0005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 051)741-5114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울산 052)261-3388	청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정전 Town-Continental 3.0 AWD** 2021년 타이타닉 배기량(cc) 2,996 공차중량(kg) 2,145 차장(mm) 4,755 도장면적(km<sup>2</sup>) 6.3 고속도로연비(km/l) 9.8 5등급 복합 CO<sub>2</sub> 배출량(g/km) 231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태, 차량상태, 차중량 및 하중상태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링컨 고객센터 1800-4003 intok@lincoln.com 긴급출동서비스 090-300-3673



lincoln-korea.com

# Night magic

길고 긴 밤, 당신의 피부에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피부 세포가 재생하는 물론 탄력을 위한 나이트 케어 코스메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금 압출액 렉스트레 로즈워터 앰플 마스크** 랩콤의 독보적인 성분이자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장미 줄기세포의 생장력을 고스란히 앰플에 담은 집중 케어 마스크. 마치 캐시미어처럼 생긴 펠트질 앰플 일곱개를 세련 베이시에 섞어 버리는 독특한 형태의 제품이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기 전, 함께 내장된 고급스러운 스페큘러와 작은 점자에 펠트 앰플을 한 스푼 덜어내고 투병형의 세련 베이시를 섞어 얼굴, 목, 데콜레까지 바른 다음 5~10분 후에 닦아내면 끝. 세팅 하나만 가볍게 발라도 피부가 뽀얗고 윤기있게 부드러워질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가 단연 돋보인다. 30ml 53만원. 문의 080-001-9500

**다올 프레스티지 르 니ectar 드 뒤** 장미 생분이 있어서는 독보적인 노화유를 지니 다올. 이러한 다올의 프레스티지 라인에서 강력한 유효 성분을 담아 세포 재생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나이트 전용 스페셜 케어 세럼을 선보였기에 더욱 믿을 만하다. 다올의 자부심인 로즈 드 그랑블의 장미 줄기세포도 첫 번째 성분으로에서 추출한 생분말 담았기에 확실한 생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하다. 또 피부층에서 흡수 친화적, 그리고 감수이 활성 성분을 전하는 밀파유 매개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세포 재생을 최적화한다. 30ml 58만원 5천 원. 문의 030-342-9500

**클레드보 보메 라 크렘**은 인티에이징 전용 나이트 제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 인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는데, 그중 클레드보 보메의 라 크렘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인종을 받았다는 점에서 확실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안의 텍스처가 혁신적인 최신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은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클레드보 보메의 정수를 모두 담은 하이엔드 라인에서 선보이는 나이트 크림인 만큼 성분과 효과도 독보적. 일부미네이팅 공물 렉스드가 세포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시호 추출물이 진피를 밀도 있게 채워주어 피부 광채를 극대화한다. 더불어 연차 추출물과 소나무 추출물이 비대칭적인 지방세포의 대사를 촉진해 처진 페이스 라인을 탄력 있게 잡아주는 것이 특징.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손바닥으로 발을 감싸듯이 턱 끝부터 관자놀이까지 끝까지 밀어주어 마지해준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30ml 68만원이다. 문의 02-3438-6032

**샤넬 라 뉐** 검은색 패키지로도 이미 나이트 제품을 알 수 있는 샤넬의 밤 전용 디톡스 에센스. 피부 재생이라는 콘셉트를 담은 제품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클래식하지만 인티에이징에 가장 효과적인 히알루론산과 피부 진정 작용이 뛰어난 유탕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즉각적인 효과가 탁월하다.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얼굴, 목, 데콜레까지 충분히 바를 것. 그다음 날 숙면을 취할 듯 쫄쫄하고 윤기가 살아난 피부를 만날 수 있다. 50ml 12만원. 문의 080-332-2700

써서 사용해도 좋고,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적이다. 3주간 매일 밤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재생력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한 방에 60개의 앰플이 담겨 있어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이다. 60개입, 18ml 17만8천원이다. 문의 02-3440-2772

**프래쉬 블랙티 파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슬리핑 마스크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래쉬의 대표 제품. 밤의 사이클을 활용해 피부에 유효 성분을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수시키는 나이트 전용 마스크로, 보습은 물론 타이팅 효과가 뛰어난 코르셋 마스크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한 방만 사용해도 브랜드의 마.이가 될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제품이다. 신제품을 느껴보는 불만과 밤에 펴는 곳으로 알려진 벨루(부족) 성분도 매력적으로, 보다 럭셔리한 뷰티 라우팅을 꿈꾸는 여성에게 제격이다. 100ml 13만8천원이다. 문의 080-822-9500

**시슬리 수프리미아 아이** 여성들의 총애를 받고 있는 브랜드 시슬리. 그중에서도 초고가의 라인인 수프리미아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이 제품으로 시작하면 될 것. 시슬리는 주로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체 원료를 사용하는데, 그 덕분에 장기간 사용해도 트러블 없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슬리의 나이트 케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다.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워터 글리세린 LC127가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용해 피부 세포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해 다크서클, 부기, 주름 등 눈가에 나타날 수 있는 피부 고민들을 빠르게 개선한다. 15ml 30만원. 문의 080-549-0216 에디터 권유진

# Mercedes-Benz Club.

Blue, eau de toilette.



수입판매업 : (주)에이치엔비엔씨 | www.ecosbkr | 문의 : 080-383-5454

INCC - License of Daimler AG



# Mercedes-Benz



일상생활에서 쉽게 잊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3중 안전 시스템과 석회질 제거 필터 기능을 추가한 디스틴타 컴팩션 퓨처 브론즈 잔기 모터 19만9천원 드롭키. 문의 080-488-7711



일상생활에서 쉽게 잊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3중 안전 시스템과 석회질 제거 필터 기능을 추가한 디스틴타 컴팩션 퓨처 브론즈 잔기 모터 19만9천원 드롭키. 문의 080-488-7711



기본적인 컬러 필름과 라이카 특유의 흑백사진을 즉석 사진으로 즐길 수 있는 라이카 소포트 38만원대 라이카. 문의 1661-0405



듀얼 스피커와 3개의 트위터로 중·저음과 고음을 날리는 인도적인 사운드를 구현하며 무선 기능으로 편리하게 다한 고품격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GTK-XB7 49만원대 소니 코리아. 문의 1588-0311



주피터까지 균일하게 고주파를 집중시켜 붙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회복시킨다. 잡세도 편리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고주파 피부 관리기, 페이스타이트 55만원대 실리콘. 문의 080-246-1234

# IT tech

편리하고 실용적인 신혼 생활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욕심나는 테크 제품을 모았다.



5분만 충전해도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기존 제품보다 3배 더 긴 최대 40시간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비츠 솔로 3 와이어리스 헤드폰 35만원대 비츠 바이 테크닉스. 문의 02-3467-8789



4단계 온도 조절과 3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하며, 골드 샷 기능을 갖춰 극심한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한다. 모발 말리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줄 획기적인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55만6천원 다이슨. 문의 02-3479-1490



운동할 때 있어서는 안 될 혁신적인 웨어러블 기기. 착용자의 심박 수와 활동량, 운동량, 수면 효율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핏비트 차지 19만9천원 핏비트. 문의 080-808-0232

카메라 렌즈, 어댑터, 갈수함



초경량과 24시간 동안 구동되는 '올데이 두 가지'를 내세워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LG 2017 그램 노트북 1백53만원부터 LG전자. 문의 1544-7777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후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빛과 미세 진동을 활용해 피부 톤과 수분,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스킨 라이프 테라기 15만원 메이브론. 문의 080-023-5454



서브 우퍼의 도움 없이 오디오 하나로 강력한 소리를 전달하고, 깔끔한 저역대 주파수를 제공한다. 수카 7천원부터 골드문트. 문의 02-516-9081



편안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기록될 단 하나의 매트리스  
THE HERITAGE OF SLEEP SCIENCE  
ACE HERITZ

## THE NATURE OF ACE HERITZ



**WOOL**  
수분을 흡수, 발산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4개월 내내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는 100% 순수 양모



**HORSE HAIR**  
속이 비어 있는 튼튼 구조로 수면 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천연 에어컨



**ORGANIC COTTON**  
화학비료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100%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목화만을 사용하여 만든 식물성 천연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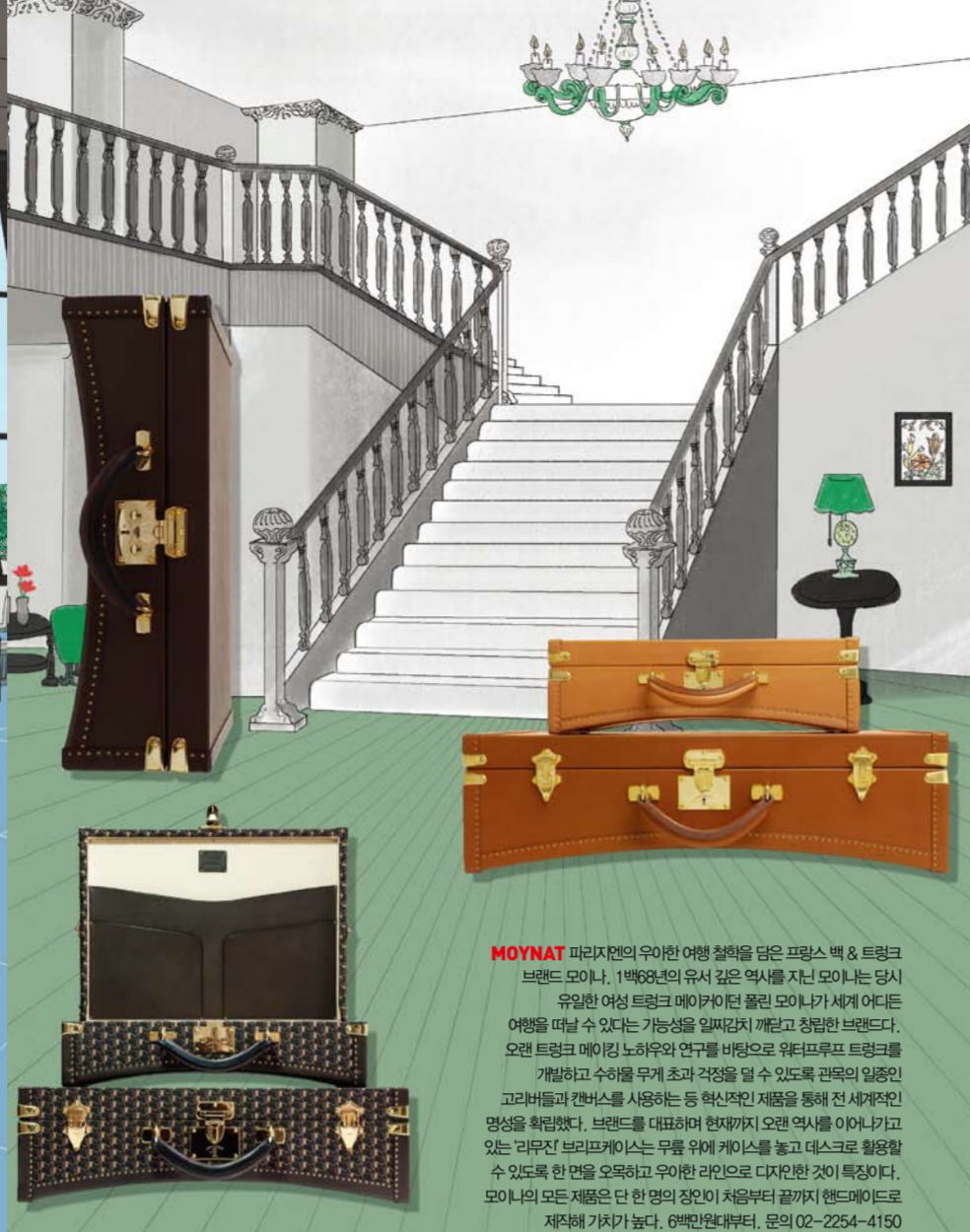
<b>ACE AVENUE</b>	<b>ACE SQUARE</b>	<b>울산점</b> (02)260-0140	<b>아이파크점</b> (02)2012-2073	<b>신세계강남점</b> (02)3479-1978	<b>대리점</b>
서대문점 (02)541-1001	수원점 (02)498-1535	신정점 (02)2699-9923	현대본점 (02)3449-5409	신세계센텀시티점 (051)745-2367	강남점 (02)545-3161
대전점 (042)527-1881	화천점 (031)232-7121	<b>백화점</b>	현대무역점 (02)3467-8571	신세계대구점 (053)661-6734	청담점 (02)545-0672
대구점 (053)761-1991	화천점 (051)646-7121	롯데월드타워점 (02)3213-2642	현대판교점 (031)5170-2874		분당금곡점 (031)712-4161



TEL: 1670-0117



**ZERO HALLIBURTON** 영화 (007) 시리즈 속 가장으로도 유명한 제로 할리버튼은 1938년 항공 실계 엔지니어들의 협력을 통해 얻은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한 여행용 케이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가방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한때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ZR-GE02는 브랜드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출시하는 제품인 만큼 브랜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온도,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알루미늄 소재, 걸린 현상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핸들, 자유자재로 조종이 가능한 바퀴, 물건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내부 디자인까지, 충격을 대 없이 완벽하다. 172cm 99만원. 문의 02-586-7999 **HATMAN** 고객의 높은 품격과 고귀함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도 느껴져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1백40년간 하이엔드 여행용 가방을 선보여온 하트만. 하트만의 컬렉션 중 최고급 라인인 '자 최선' 기술을 담은 7R 마스터 컬렉션은 그 위상만큼이나 남다른 오리를 발산한다. 한눈에 봐도 정교한 외관은 그 어떠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강한 내구성을 이루기 높으로 제작했고, 바퀴를 포함한 모든 부품들은 각종 테스트를 통해 최악의 조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25인치 1백35만원. 문의 02-2007-2942



**MOYNAT** 파리자선의 우아한 여행 철학을 담은 프랑스 백 & 트렁크 브랜드 모이나. 1백60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모이나는 당시 유일한 여성 트렁크 메이커였던 폴린 모이나가 세계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창립한 브랜드다. 오랜 트렁크 메이킹 노하우와 연구를 바탕으로 워터프루프 트렁크를 개발하고 수하물 무게 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권모의 일종인 코리버와 캔버스 사용 등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전 세계적인 명성을 확립했다. 브랜드를 대표하며 한때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리무진 브리프케이스는 무릎 위에 케이스를 놓고 데스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면을 오목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모이나의 모든 제품은 단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메이드로 제작해 기가 높다. 8백만원부터. 문의 02-2254-4150

# Travel mate

오랜 전통은 물론, 탄탄한 소재와 실용적인 기능성, 빼어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춰 럭셔리 트렁크의 진수를 보여줄 6개 브랜드의 여행용 캐리어가 여기 모두 모였다. 두 사람이 함께할 여행지에서 우아한 동반자가 되어줄 하이엔드 캐리어 중, 당신의 선택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GLOBE TROTTER**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트케이스라는 낙원이 붙은 1백20년 전통의 럭셔리 여행 가방 브랜드 글로브 트로터. 브랜드 애칭인 글로브 트로터, 브랜드 애칭인 글로브 트로터, 브랜드 애칭인 글로브 트로터 제품을 애용한 명사 리스트는 실로 화려한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947년 신혼여행 때 이 제품을 사용했고, 고다이어나 왕세자비 또한 12개의 글로브 트로터 케이스를 신혼여행에 가져갔다고 하니, 그 명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 브랜드의 핵심 DNA인 발터 피어비 소재가 강점으로, 이는 가죽보다 더 질기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며 수심 년 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현재까지도 1897년 빅토리아 시대의 수제 방식을 고수하며 영국에서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제품 하나에 약 열흘간 총 96가지 제작 과정을 거치고, 하루에 20개 정도만 완성되는, 말 그대로 귀한 제품이다. 1백만원부터. 문의 02-6354-3394



**HERMÈS** 에르메스의 역사를 기술러 올라가 보면 귀족들의 마구용품과 여행용 트렁크에서부터 시작한다. 브랜드의 DNA를 잇을 수 있는 하이엔드 캐리어 라인인 칼레쉬 엑스프레스는 항공사의 기술력을 빌린 H 테크 캔버스를 사용 기존 제품보다 40%가량 가볍고 내구성 또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바퀴, 안정적인 넓은 핸들 등 실용적인 기능 또한 겸비했다. 142cm 8백만원대, 21인치 9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LOUIS VUITTON** 루이 비통이 1854년 파리에서 여행 가방 전문 매장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만큼 이 브랜드를 이야기 할 때 여행용 캐리어를 빼놓을 수 없다. 루이 비통은 보다 혁신적인 행보 중 하나로, 기존 트렁크 라인을 산업 디자인 마크 누슨과 협업해 리뉴얼했다. 이 '올리온 컬렉션'은 마크 누슨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메시 구조로 이루어진 강화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매우 얇고 가벼운 동시에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35x50x20cm 3백17만원.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권유진



# SUECOMMA BONNIE

MY STYLE, MYSELF

WWW.SUECOMMABONNIE.COM

*Classic Elegance*

(왼쪽부터) **볼가리 세르펜티 비아피** 오묘한 그린빛이 감도는 아이비 투르말린 색상의 부드러운 카프 레더에 세르펜티 주얼리의 상징적인 뱀 모티브 클로저 장식을 더해 럭셔리함을 지어준다. 25X20cm 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루이 비통 카쉬신** 1854년 브랜드가 최초로 탄생한 노브 데 카쉬신 가리에서 영감을 받은 카쉬신 백, 심플한 브랜드 로고 디테일, 주얼리 링을 연상시키는 백과 핸들 연결 고리 디테일이 돋보이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27X21cm 5백20만원대, 문의 02-3432-1854 **카르디에 C 드 카르디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칼라이기도 한 생기 있는 레드 컬러를 선택해 피리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중앙에는 악어 가죽으로 포인트를 주어 클래식한 맛을 강조했다. 34X24cm 1천6백만원대, 문의 1566-7277

프레데리시아 빈티지 레더 소파 2천7백9만원, 칼 한스 앤 손 오크 우드 테이블 2백6308만원, 프레데리시아 레더 체어 6백62만원 모두 **헨스크**.



*The New Age*

**미리앙 셰퍼 베이비** 로드 간결하게 톱 떨어지는 라인에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핑킹 스트랩 핸들의 조화가 눈길을 끈다.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오직 최고급 소재의 퀄리티를 강조하는 미리앙 셰퍼 베이비 로드는 독일의 남부 지방과 오스트리아의 알페시 숲이 지극으로 만들어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이다. 33X27cm 7백90만원대, 문의 02-6905-3318 **렌디 레굴리 파카부 & 스티드 스트랩** 유 및 해 전투터 예물 백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파카부 백, 예물 백에 좀 더 특별함을 부여하고 싶다면 고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인플루언스 스티드 장식을 솔더 스트랩을 더하면 한층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다. 34X26cm 파카부 백 4백75만원, 스트랩은 1백68만원, 문의 02-2056-9023 **프리더 파라디디마**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피아는 갈라리아 백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백의 인복과 스트랩에 핑크 색상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31X23cm 3백16만원, 문의 02-3215-5331

칼 한스 앤 손 다이닝 테이블 4백91만원, 의자 1백230만원 모두 **헨스크**.



*the Precious gift*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어시스턴트 이서영, 김수빈, 장소 박도, 헨스크 문의 070-7475-4254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의 상징적인 컬렉션부터, 특별한 협업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트렌디한 예물 백까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담아, 섬세한 안목으로 제안하는 예단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imeless Classic*

(왼쪽부터) **셀윈스 클래식 미니** 시대를 연 셀윈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비 파릴로가 셀윈스에서 첫 컬렉션에서 유일하게 선보인 백으로, 바건디 색상의 양가죽에 골드 버클 장식으로 모던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솔더와 크로스, 두 가지 변형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23X19cm 4백90만원대, 문의 02-540-0496 **에르메스 콘스탄스** 군더대기 없이 간결한 라인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제된 아름다움을 완성한 백, 원 컬러로만 꾸준히 선보인 기조는 달리 이번 시즌엔 스크롤랜드 데탕슬 체크 패턴을 더했다. 23X20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디올 마이 레이디 디올** 브랜드의 상징적인 레이디 디올 백의 스타일을 버전이다. 까, 주 패턴과 이나셀 매달 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즈를 축소하고, 3개의 핀으로 장식한 와이드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20X17cm 4백만원대, 문의 02-3480-0104

칼 한스 앤 손 패브릭 소파 6백22만원, 옥스 덴마크 블랙 마블 미니 오 테이블 1백140만원, 블랙 마블 미니 오 테이블 1백20만원, 그린 마블 미니 오 테이블 90만원 모두 **헨스크**.



*Artistic Touch*

**폴로보 비아 엘라 스파가 디오네** 아래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시더리움의 뛰어난 실루엣이 돋보인다. 최상급 악어 가죽에 정교한 플로럴 패턴의 자수를 놓아 고급스러움과 페이닝함을 극대화했다. 25X18.5cm 2천만원대, 문의 070-7130-9206 **구찌 살비 탑 핸들** 산뜻한 핑크와 장사적인 디테일로 패션계에 혁신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화려한 핑크는 백, 구찌의 클래식한 살비 백 향에 독특한 체인 장식과 스프링 버클 클로저를 달고, 독자적인 자수 장식을 매치했다. 32X23cm 4백32만원, 문의 1577-1921 **엘보 팔레트** 화이트 솔더 50여종의 가늘게 제작한 나비(Papillon) 리미티드 에디션,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다섯 가지 음영의 청색 패턴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완성한 나비 모티브가 특징이다. 27.5X22cm 8백만원대, 문의 02-3493-5316 **로저 비비에 비브 카비 기부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둥근 버클이 특징인 비브 리얼화 제품을 함께 추가된 모델, 솔더와 토포,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도록 이성적인 모티프 사이드로 제작했다. 수입을 이용한 워터 컷팅 기법으로 표현한 플라워 패턴 가죽이 여성스러운 무드를 풍긴다. 32X26cm 4백90만원대, 문의 02-6905-3370 에디터 **김유진, 이서연**

프레데리시아 소파 7백48만원, 테이블 1백20만원 모두 **헨스크**.



# the love Whisperer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웨딩에 대한 로맨틱한 판타지를 실현시켜줄  
웨딩 주얼리 & 웨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Diamond Rings for Graceful Bride

화보 맨 위에 등장한, 꽃잎을 이루는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빅토리아 마카즈 클러스터 네크리스 가격 미정 **타파니**, 맨 위 네크리스 기준, 왼쪽 윗부터 순서대로 사진이 느껴지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피에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2천7백만원대 **블라티**, 오벌 컷 다이아몬드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로미스 링 5.02캐럿 기준 가격 미정 **그라피에**.

두 줄의 네크리스 사이,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본의 유인한 곡선을 연상시키는 소용돌이 형태의 밴드에 핼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어드 솔리테어 링 1.5캐럿 기준 6천7백만원대 **타사키**, 6개의 프롬 이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곡히 들어 올려 광채를 더욱 극대화한 타파니 세팅 링 1.6캐럿 기준 6천만원대, 모던하고 유니크한 스페어 세이프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파니 에메랄드 컷 솔리테어 링 0.59캐럿 기준 1천8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가 점점 좁아지는 디자인으로 스톤을 더욱 아름답게 강조한 보네르 링 1캐럿 기준 3천2백만원대, 핑크 골드 원형 비즈로 이루어진 밴드가 유니크한 베블리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8백만원대, 플라티넘 밴드 양쪽에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 투명한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스톤을 세팅한 로망스 링 0.4캐럿 기준 9백만원대 모두 **반올림 이펙트**, 1503년 베네치아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이 최초로 시작된 데서 모티브를 얻은 배너치 컬렉션으로, 메인 다이아몬드가 더욱 돋보이도록 양옆 밴드를 좁힌 형태의 투르세로 링 1캐럿 기준 2천5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브리지와 중앙에 위치한 메인 다이아몬드를 품은 디자인이 인상적인 인문으로 다모레 링 1캐럿 기준 4천5백만원대 모두 **블라티**, 꽃잎을 연상시키는 유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의 밴드가 특징인 리본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타사키**, 미소를 감추고 주위에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마이크로 파베 세팅 기술을 적용해 불룩하게 솟은 화려한 자태의 섀터 스톤을 강조한 까르피에 데스타이 솔리테어 링 2.16캐럿 기준 가격 미정 **까르피에**.

하단 네크리스 7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길고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에센셜 라인 네크리스 13.5캐럿 기준 가격 미정 **까르피에**, (네크리스 아래 왼쪽부터) 두 줄로 비드 세팅한 리운드 다이아몬드가 쿠션 브릴리언트 컷의 섀터 스톤을 감싼 타파니 솔리테어 링 1.10캐럿 기준 3천1백만원대 **타파니**, 동백꽃의 우아한 꽃잎을 표현한 뉴 캐슬로이 인게이저먼트 링 0.77캐럿 기준 2천8백만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메인 스톤 양옆으로 플라티넘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헤비 브리드 컬렉션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5백만원대 **스피드**, 상위 1%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우아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세팅한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 2캐럿 기준 4천5백만원대 **타사키**, 브랜드 고유의 쉘트 패턴을 적용한 마들레세 솔리테어 링 0.51캐럿 기준 1천만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4개의 돌을 팔레트와 와이어 보드로 이루어진 마운트가 돋보이는 솔리테어 링 1.89캐럿 기준, 1895년 루이 까르피에가 디자인한 것으로, 우아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낸다, 2.01캐럿 기준 가격 미정 **까르피에**, 목보존적인 우아함을 자랑하는 오벌 세이프 다이아몬드 링 1.05캐럿 기준 3천1백만원대 **타파니**.

※ 본 화보에 등장한 모든 다이아몬드는 정통 동급과 견주어 대비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Gorgeous Women's Watches*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까르띠에 갈레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탱크, 발롱 볼루의 뒤를 이으며 애플 워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까르띠에의 뉴 이코닉 워치, 역시 모티브의 크라운이 특징으로, 크라운을 돌리면 전통적인 복사계나 탁상시계를 와이드할 때 역사를 돌리는 동작을 연상시킨다. 3천 4백만원대. **볼가리 디바스 드림 워치** (클레오피트라) 속 알로카헤스 태일과의 강렬한 메이크업과 부채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 배열 주위와 영롱하게 빛나는 마디모브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사틴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2천9백만원대. **피아제 라망다이트 갈라 밀라니스** 피아제를 상징하는 베스트셀러 여성 워치로, 리운드 케이스를 따라 놓아뜨린 2개의 라크 디테일이 돋보인다. 우아한 로마자 인덱스를 다룬 다이얼은 유려한 밀라니스 메시 스트랩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4천9백만원대. **발랑팡 우먼 오프 스타트 이워 워치**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기술력 또한 포기할 수 없다면, 해답은 단연 발랑팡이다. 레트로그레드 기능을 겸비한 칼들라게이션 여성 워치로, 자계 다이얼 중앙에 마치 은하수를 수놓은 듯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중심에서 벗어난 시침과 분침이 유닛하다. 2천1백만원대. **티파니 이스트 웨스트 워치** 수작이 아닌 수평으로 디자인한 혁신적인 다이얼이 눈길을 끈다. 디자인이 중심적인 워치를 좋아하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추천한다. 4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창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성 워치로 자리 잡은, 진실한 사랑과 행운의 메시지를 담은 창 워치, 알함브라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샹이 베젤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 2천4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보이프렌드 워치** 사철 남녀 5 향수 보틀이 떠오르는 팔각형 보이프렌드 워치는 샤넬의 시그니처를 반영한 것으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가격 미정.



백인드레스 시어by 이젤은, 상백인 드레스상용, 보티 에메랄드와 레노, 부채 꽃,.

*Signature Wedding Couple Bands*

(첫 번째 줄 사진 왼쪽부터) **티파니 파이어 칼렉션** 파이어는 간헐처럼 디자인한 커플 링, 남성 밴드 링 1백50만원대, 여성 밴드 링 3백70만원대, **티파니 라벤로 칼렉션** 꽃잎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의 커플 링, 남성 밴드 링 1백20만원대, 여성 다이아몬드 링 3천원대. (두 번째 줄 왼쪽 사진) **티파니 T 루 링 칼렉션** 브랜드 이니셜을 모티브로 만든 티파니 T 칼렉션의 후속 모델로, 하나로 연결된 T 라인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옐로 골드 링 2백30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옐로 골드 링 1천만원대. (두 번째 줄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반클리프 아펠 에스테트 칼렉션** 장인 이 직접 만든 정교한 비즈 장식을 밴드 양쪽에 섬세하게 세팅한 커플 링, 다이아몬드 세팅 링 0.39카럿 기준 6백10만원대, 워딩 밴드 링 3백2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뉴욕 칼렉션** 솔로 다이아몬드 세팅과 이젤리체 로고 시그니처가 특징이다. 각 3백90만원대. (네 번째 줄 사진 왼쪽부터) **티파니 아틀라스 파이어스 칼렉션** 심플한 밴드 위에 로마숫자를 새긴 독특한 디자인의 커플 링, 각 1백20만원대, **티파니 T 칼렉션** 브랜드 이니셜 T를 모티브로 해 수직적 인사와 강렬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각 1백90만원대.





상대편 클러스터 바늘바, 티스도 에르메스에서도 만나.

*Best Couple Bands*

(첫 번째 줄 사진 왼쪽부터) **피아제 포제션 컬렉션** 화조하는 2개의 링이 결합된,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담은 카를 링, 화이트 골드 밴드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밴드 링 7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피베 세팅 핑크 골드 링 1천8백만원대, 핑크 골드 밴드 링 3백만원대, (두 번째 줄 왼쪽 사진 왼쪽부터) **카르띠에 트리니티 컬렉션**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다른 컬러의 하모니로 이루어진 카를 링, 다이아몬드 밴드 링 5백50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30만원대, **카르띠에 라브 컬렉션**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브랜드의 시그처 모티프인 스크루 문양이 새겨진 라브 링, 화이트 골드 라브 링 2백10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뉴 라브링 8백40만원대, (두 번째 줄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라쉬 컬렉션** 샤넬만의 감성으로 섬세하게 재해석한 꽃링 패턴인 마텔라세(Matelasse)를 표현한 카를 링, 남성 밴드 링 3백60만원대, 여성 밴드 2백60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컬렉션** 세라믹 소재로 제작해 도화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다이아몬드 세팅 여성 밴드 링 5백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60만원대, (네 번째 줄 사진 왼쪽부터) **볼가리 볼가리 컬렉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처 아이템으로, 볼가리 더블 로고 장식 모티프가 특징이다. 각 2백만원대, **볼가리 비제로인 컬렉션** 볼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핑크 골드가 어우러진 나선 모티프가 돋보인다. 각 2백만원대.



*Men's Dress Watche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랑랑 발퀴레 레트로그래이드 스톱 세컨즈** 볼랑핑의 뛰어난 기술력을 담은 워치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드레스 워치,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칼리버 76630을 장착했고 레트로그래이드로 작동하는 6시 방향의 스톱 세컨즈가 특징, 1천5백만원대, **오메가 시아스터 아쿠아 테라**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시계로, 스톱워치면서도 클래식한 위치를 선호하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오메가 코-엑스칼 미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로 구동된다, 6백70만원대, **몽블랑 4810 데이트 오토매틱** 몽블랑 워치메이킹의 전통적인 디자인 코드를 충실히 계승하는 동시에, 견고하면서도 우아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춘 4810 칼리버, 몽블랑 스타 패턴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화이트 실버 기요세 다이얼, 레드 골드 도금 핸즈가 돋보인다, 3백30만원대, **볼가리 옥토 피아시모** 팔각형 베젤을 장착한 고유의 케이스에서 남성의 강인함이 느껴진다, 2.23mm 두께의 매뉴얼 와인딩 매케-네절 무브먼트를 장착해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3천7백만원대, **카르띠에 드라이브 드 카르띠에** 남성의 영원한 로망인 자동차와 시계를 디자인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 라디오미터 그릴을 담은, 스페이아를 시트한 18K 핑크 골드 팔각 크리슬이 특징이며, 1904-PS MC 칼리버를 탑재했다, 2천3백만원대,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트라 신 시계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시계 두께가 5.25mm밖에 되지 않는다, 클래식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세 가지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실버 다이얼 위 정갈한 버 إن테 스와 4시 방향의 스톱 세컨즈 창이 심플함의 미학을 보여준다, 2천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파이프 아펠** 클래식한 경계 디자인에 블랙 옐라게이트 스트랩을 매치해 마치 잘 차려입은 턱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베젤에 비그레 컷 다이아몬드 세팅 어부를 선택할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 Romantic Wedding Jewelry

(왼쪽 페이지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성한 수국 부케를 표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입체적으로 세팅,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한 와이드 부케 레 디안트 링 가격 미정 **타사키**, 브랜드의 상징적인 리본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루빈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벨 화인 주얼리**, 에펠릿 컷 다이아몬드와 스퀘어 컷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맛을 풍기는 폰타네 디 로마 드림 이어링 가격 미정, 기념비적인 원형 모티브를 채운 리본 연결한 디자인에 14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무려 18,227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칼렉션 볼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고대의 기념비 패턴과 부채 모티브가 포인트인 디바스 드림 링 2천1백만원대 모두 **블가리**, 오래된 기호에서 영감을 받은 볼드한 원형 모티브의 드롭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파리 누벨버그 이어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피베 세팅했다. 3,377원 기준 8천4백만원대 **카르띠에**.

(오른쪽 페이지 상반면 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행운을 불러온다는 포제션 링의 '최전 콘셉트'를 브라이덜링 버전으로 선보인 포제션 오픈 밴드 브라이덜링 18K 핑크 골드 1천2백만원대 **피아제**, 우아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리본 모티브가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소재 보우 컷프 1천1백만원대 **타사키**, 목선과 새끼를 따라 미치 다이아몬드 꽃잎이 열아홉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커리사 칼렉션 오픈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총 68,877점에 달하는 다양한 컷팅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가격 미정 **그라프**, 활짝 피어난 꽃병오리의 모습과 달은, 높이 뛰어오른 날레라니의 튀튀 스커트를 표현하기 위해 정교한 꽃잎 모티브로 완성한 프레스스 쇼퍼드 칼렉션 하이 주얼리 워치 5,597원 기준 가격 미정 **소파드**, 베젤과 다이얼은 물론 브라이덜링까지 다이아몬드로 빼곡하게 장식한 베비비 그라프 다이아몬드 워치 21,447원 기준 가격 미정 **그라프**, 브랜드의 상징적인 이브 피아제 로즈가 안개함 모습을 표현한 로즈 브라이덜링 1,327원 기준 2천1백만원대 **피아제**, 다이얼부터 스트랩까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수놓은, 하이 주얼리 버전의 표범과 워치 2,467원 기준 가격 미정 **에르메스**, 들린에 자유롭게 핀 이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입체적인 꽃송이가 돋보이는 풀리 데 프레 칼렉션 이어 클립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풀리워 모티브 중앙에 5개의 무빙 다이아몬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 해피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8천9백만원대 **소파드**, 에디터 **베인진**, **권유진**, **이아전**

**그라프** 02-2256-6810 **카르띠에** 1566-7277 **몽블랑** 02-2118-6053 **반클리프 아펠** 00799-852-16123 **블가리** 02-2056-0171 **블랑팡** 02-6905-3367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소파드** 02-6905-3380 **에르메스** 02-3015-3283 **오메가** 02-511-5797 **타사키** 02-3461-5558 **타사키** 02-547-9488 **피아제** 02-540-2297



**LANCÔME**  
중력을 가सन 두 피부 탄력을 끌어올린다 하여 반중력 화장품이라는 애칭을 지닌 레네르지 컬렉션. 피부 속부터 탄력을 충출히 채워 동안 피부를 완성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네르지 반중력 탄력 아이크림 15ml 9만9천원대, 레네르지 탄력 메모리 젤 스킨 200ml 7만2천원대, 레네르지 반중력 탄력 크림 50ml 15만5천원대, 레네르지 나이트 마시징 크림 75ml 13만원, 레네르지 얼티-리프트 에센스 100ml 12만원대 모두 **랑콤** 총 57만1천원대. 문의 080-022-3332

**DIOR**  
디올 뷰티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장미 성분 중, 가장 고귀하고 놀라운 재생력을 지닌 로즈 드 그랑빌 성분을 담아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 디올에서 선보이는 하이엔드 제품답게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텍스처가 돋보인다. (왼쪽부터)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림오리지 50ml 46만2천원대, 디올 프레스티지 힐 수브림 페이스 오일 30ml 35만원 모두 **디올** 총 81만1천원대. 문의 02-3438-9537

**CHANEL**  
샤넬 뷰티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단연 수블리미지다. 그린 다이아몬드와 불려는 비닐라 플라놀리자 성분을 함유해 피부 재생·회복·보호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작용하며 피부 스스로의 힘을 길러준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미지 라 리솜수프림 125ml 15만8천원, 수블리미지 래스 30ml 52만원, 수블리미지 라 크림 50g 48만원,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15ml 63만8천원 모두 **샤넬** 총 1백79만8천원. 문의 080-332-2700

**FRESH**  
프레쉬에서 선보이는 가장 고가의 하이엔드 컬렉션으로, 화장품업계에서는 보기 힘든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며 한 병 한 병 수작업으로 정성스레 완성한다. 재생 연고라 불릴 정도로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림 앙시엔-수프림 페이스 세럼 30ml 37만원대, 엘릭서 앙시엔 50ml 42만원대, 크림 앙시엔-100g 47만원대, 크림 앙시엔-인퓨전 120ml 14만5천원대 모두 **프레쉬** 총 1백40만2천원대. 문의 080-822-9500

# brilliant Beauty

결혼식 날만큼은 한층 더 보이는 동안 피부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싶은 신부와, 감사하다는 말로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양가 어머니의 탄력 있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9개의 럭셔리 뷰티 하우스에서 제안하는 웨딩 뷰티 선물 세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A PRAIRIE**  
결혼식 당일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집중 케어 라인. 피부 보습력 증진 등만 사용하는 집중 케어 세럼과 진귀한 화이트 캐비아 성분을 담아 화이트닝은 물론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화이트닝 제품으로 구성했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생유라 피부 인퓨전 7.8mlx4병 62만9천원, 화이트 캐비아 크림 50ml 63만5천원,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션 아이 세럼 15ml 36만2천원, 화이트 캐비아 세럼 30ml 63만5천원 모두 **라프라이** 총 2백26만3천원. 문의 080-511-6626

**CLARINS**  
클라린스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만 알차게 구성된 웨딩 세트. 순화민사도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식물성 성분과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신부는 물론 신랑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세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엑스트라-피밍 트리트먼트 에센스 200ml 6만3천원, 엑스트라-피밍 아이크림 15ml 7만5천원, 더블세럼 50ml 15만원, 엑스트라-피밍 나이트 크림 50ml 12만원, 엑스트라-피밍 데이 크림 50ml 11만원 모두 **클라린스** 총 51만8천원. 문의 080-542-9052

**DECORTE**  
브랜드 내에서도 전종한 VIP 고객을 위한 럭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손꼽히는 AQ알리오리테 컬렉션. 크림 하나만 1백만원 훌쩍 넘는 고가 라인으로 비싼 가격만큼이나 향, 텍스처, 효과, 패키징까지 어느 것 하나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AQ 알리오리테 리페어 에센스 200ml 39만원, AQ 알리오리테 리페어 로션 200ml 26만원, AQ 알리오리테 더블 컨센트레이션 50mlx27개입 68만원, AQ 알리오리테 인텐티브 크림 45g 1백58만원 모두 **데코르테** 총 2백91만원. 문의 080-568-3111

**JO MALONE LONDON & AESOP**  
신부를 위한 선물로 영구적이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몸 전체에 스며들며 향을 더해줄 조니앤조니의 손과 시트와 스킨케어 라인에, 티트리오일 핸드 워시부터 크림까지 향이 아름다워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비드 크림 100ml 14만3천원대, 알리오리테 하이퍼 리페어 로션 250ml 8만9천원대 모두 **조니앤조니** 총 26만6천원대. 문의 02-3440-2750. 알리오리테 로션은 200ml 13만2천원, 로즈비드 크림 100ml 14만3천원, 로즈비드 크림 500ml, 레제렉션 아로마틱 핸드 워시 75ml, 에이 로즈 바이 에니 아더 네일 버러 크림 200ml, 레주네이트 인텐티브 바디 밤 120ml 13만2천원 **이슬**, 문의 1800-1987 에디터 권유진

크리스털로 수놓은 톱라 겹겹의 스커트가  
 풍성하고 화려한 벨리인 드레스 가격 미정  
**라자로 by 갤러리아**, 플라타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세팅 링 가격 미정,  
 함께 착용한 세이드 세팅 밴드 링 1천1백만원대,  
 꽃잎 같은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우아하게 세팅한 네크리스 1억5천만원대,  
 빅토리아믹스드 클러스터 브레이슬릿  
 6천7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골드 펠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지미쑈**.

# White Bloom

눈 속에 피어난 하얀 꽃처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의 향연이 펼쳐진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부들의 워너비 웨딩드레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도비 실크에 골드 레이스와 샬버  
 레이스 모티브를 믹스 매치한 드레스  
 2백50만원, 레이어드한 하이넥  
 시폰 블레르 블라우스 50만원  
 모두 **에고스포사**, 진주 드롭 이어링  
 9만5천원, 본티지 링 10만5천원  
 모두 **제이미엔벨**, 진주 장식의 골드 링  
 33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케미컬 레이스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한 마메이드라인 드레스 가격 미정 **이승진** 웨딩, 플라워 모티브의 이어링 10만5천원 **제이미앤벨**, 빅사이즈의 플라워 모티브 실버 링 가격 미정 **코디시어르**.



보디 전체에 스팅글을 매치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스타일리시한 드레스 가격 미정 **마이도터스** 웨딩, 진주 스트랩 브레이슬릿 53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미카도 실크에 크로셋 디테일과 인체적인  
바슬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클래식한  
드레스 가격 미정 **이영순 웨딩드레스**.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클래식한  
남양 진주 이어링과 남양 진주 비드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진주를 알렐로  
배열한 18K 화이트 골드 비에 최상급  
엘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파베 링  
1천7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케이프 스타일의 플과 와이드 팬츠가  
모던한 정프 슈트 스타일의 드레스  
2백만원대 **르메르 by 노비아**.  
메시 소재의 베일을 매치한 웨딩 햇 가격  
미정 **양모**. 진주와 메탈 소재의 커스텀  
주얼리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빈티지 코튼 레이스 소재의 허라인 오프 숄더 드레스 1백80만원 **루이엘라 브라이드**, 클래식한 남양 진주 이어링 가격 미정, 화이트 골드에 6mm 이코아 진주와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1천만원대 모두 **타사키**. 플라워 모티브의 코르사주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마우미우**.

레이스 소재의 메이드 라인 드레스 가격 미정 **사작 by 이영순**, 엔틱한 골드 드롭 이어링 9만5천원 **제이미엔벨**, 거미줄 모티브의 골드 컬러 실버 링 22만원 **코디사이르**, 세공한 크리스탈을 매치한 골드 더블 링 2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핏팅크 컬러의 스웨이드 스티레토 힐 7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모델 **이현이**  
헤어 **백홍권**  
메이크업 **공혜련**  
플라워 **에스플로라**  
세트 스타일리스트 **다락**  
진행 및 스타일링 **황정희**

- 이영순 웨딩드레스** 02-540-5551
- 사작 by 이영순** 02-511-1011
- 에고스포사** 02-549-2743
- 노비아** 02-514-9981~2
- 루이엘라 브라이드** 02-540-0042
- 이승진 웨딩** 02-516-6644
- 캘리루비** 02-546-6256
- 마이도타스 웨딩** 02-549-7331
- 마우미우** 02-3218-5331
- 사벨** 080-200-2700
- 타니 by 미네타니** 02-6905-3583
-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 생 로랑** 02-549-5741
- 타파니** 02-547-9488
- 지미후** 02-3443-9469
- 앙뜨** 02-568-2977
- 코디사이르** 02-6247-5454
- 타사키** 02-3461-5558
- 제이미엔벨** 070-8247-7834





# Pearly dream

시간을 초월하는 모던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주를 다루는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창조성이 만들어낸 우아한 펄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왼쪽 위부터 아래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컬렉션 네크리스 기원학적 패턴과 부채 모티브, 영화 《클레오파트라》에 출연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강렬한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이다. 펄과 골드에 에디오프라미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불가리 디바스 드림 컬렉션 아이클립** 바늘에는 코스모스 꽃잎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우아한 우아한 자태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여성의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0798-882-16123 **타사키 펄런스 노트 링** 펄런스 컬렉션의 시그처 디자인 직선 바늘 한층 리드미컬하게 변형한 디자인이 특징. 18K 옐로 골드 바 위에 4개의 아교아 진주를 세팅했다. 2백40만원대, 문의 02-3461-5558 **타사키 펄런스 노트 다이아몬드 파베 아이클립** 은유를 상징화한 디자인에 크고 작은 진주를 세팅해 애착적인 리듬감을 선사한다. 3백40만원대, **타사키 펄런스 솔로 링** 18K 화이트 골드 바에 0.57캐럿 다이아몬드와 6mm 아교아 진주를 나란히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1천만원대, **타사키 펄런스 노트 다이아몬드 파베 네크리스** 바늘 따라 마치 울퉁퉁한 돌인 다양한 크기의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3백30만원대, **카르띠에 아교아프 펄 네크리스** 클래식한 진주에 감성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아교아프 모티브를 형상화한 컬렉션. 프랑스로 창문 걸쇠를 뜻하며 매듭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5천8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카르띠에 트리비 필 아이클립**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한 코드의 완벽한 조화로 탄생한 트리비 필 컬렉션. 브랜드의 상징인 펄과 옐로, 화이트 골드와 이루어진 원형 모티브에 펄과 옐로, 화이트 진주를 더했다. 4천3백만원대, **불가리 디바스 드림 브레이크** 펄런스 브랜드 고유의 정교한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 사탕스러운 펄과 골드에 머더 오브 펄과 블랙 오탁을 매쳤다. 5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코스모스 컬렉션** 바늘에 앙무리는 코스모스 꽃잎 모티브와 우아함의 상징인 머더 오브 펄, 다이아몬드로 여성스러움의 장수를 표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1천3백만원대, **피아제 로즈 썬드와 네크리스** 브랜드의 시그처 모티브라 할 수 있는 오프로워 세팅의 피아제 로즈의 황금 11개의 0.39캐럿 다이아몬드, 8개의 펄 오パール, 6개의 화이트 진주와 이루어졌다. 핏케 두 번 겹가나 겹개 늘어뜨려 대담하게 연출할 수 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540-2237 **에티어 베이진, 아지언**

(왼쪽부터) '세팅'이 만들어진다는 뜻의 라틴어인 이름 그대로 티파니에서 처음으로 창조한 '브릴리언트 쿠션 컷 티파니 노보 링(Novo)',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인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 링, 심플하지만 소장 가치가 높은 에메랄드 컷 티파니 밴드 링, 두 줄로 비드 세팅한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쿠션 브릴리언트 컷의 센터 스톤을 감싸고 있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솔레스트(Soleste) 링, 물결을 모방이 드라마틱한 티파니 페어 세이프 솔레스트 링 모두 티파니.



# the making of a Legend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블루빛 상자와 아름다운 자태만으로도 결혼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티파니의 웨딩 링. 독보적인 세팅과 광채, 디자인, 커팅, 대를 이어 물려줄 만한 특별한 가치까지 담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웨딩을 위한 가장 드라마틱한 선물, 티파니 웨딩 링

다이아몬드 링의 형태, 그 자체를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부터 정교하게 완성된 다양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의 웨딩 링 컬렉션. 티파니에서 선보이는 이 아름다운 반지들의 가장 큰 매력은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매료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의 광채 때문이다. 이 광채는 티파니만의 세팅 디자인과 커팅을 비롯해, 최상위 0.04%의 다이아몬드만 채택해 사용하는 엄격하에서 나온다. 1백30년 전 뉴욕에서 시작된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티파니 링은 오직 장인의 손을 통해 탄생된다. 전 세계 수많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완성하는 데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링은 특별하게 제작된다. 크기에 상관없이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키기 위해 최상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다. 메인 스톤 주변에 세팅하는 파베 원석까지도 등급 높은 다이아몬드만 사용한다. 원석이 발견된 순간부터 세공되어 티파니의 명성에 걸맞은 웨딩 링으로 탄생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

그중 티파니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준, 브랜드를 대표하는 웨딩 링인 티파니 세팅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아왔으며, 1백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웨딩 링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얻었다.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티파니 세팅은 정교한 6개의 프롱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림으로써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해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886년 선보인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링으로 반지 중의 반지, '웨딩 링의 대명사'로 불리며 창시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숭고한 신념을 담아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웨딩 링으로 일컬어진다. 티파니 세팅이 오랜 기간 사랑받게 된 배경에는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있다.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티파니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해 선별된다. 티파니는 흔히 통용되지

만 간소화된 다이아몬드의 기준인 4C(컷, 투명도, 색상, 중량)를 넘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을 제시한다. '외관(presence)'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을 더해 티파니의 우수한 품질 기준을 반영하는 커팅의 정확성과 대칭성, 연마 상태를 평가하는 것. 보석학자이자 다이아몬드 감정 연구소 매니저인 폴 콩(Paul Kong)은 "티파니는 다이아몬드에 관한 한 동종 업계의 기준 대비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말한다. 16년간 티파니 주얼리로 근무한 헨리 시우다(Henry Siuda)는 "보석으로 등 급 매겨진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9.96%는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모든 티파니 세팅은 장인의 손을 통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단 한 번 만들어지며 동일한 작업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본연의 예술가적 기교와 전문성을 반영하기에 저마다 고유의 특별함을 지닌다"라고 설명한다. 티파니만의 고유한 기준인 외관을 평가하는 방법은, 4C의 기준을 넘어서 컷의 정밀도, 대칭, 폴리시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분광, 섬광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티파니 다이아몬드만의 독특한 기준으로 기존의 4C를 초월한다. 티파니 마스터 스톤 세터인 토마스 지우라(Tomasz Dziwura)는 "모든 티파니 세팅은 예술 작품"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면밀한 작업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떠받드는 프롱의 높이와 무게, 각도를 통일해 초창기 창립자의 의지 그대로 프롱 위에 세팅한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 "훗날 반지를 착용할 사람을 떠올리며 최상의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사명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를 보고 한눈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도 이 외관 평가의 힘이 크다. 이 기준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채가 비범한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 전통과 아름다움, 사랑에 대한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인이라면, 티파니의 웨딩 링이 결혼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2-547-9488 **에티어 베이진**



1 오직 티파니 다이아몬드에서만 발행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  
2 티파니™ 세팅 탄생의 기승해 1백30개 한정판으로 출시된 파베 티파니™ 세팅 (Pavé Tiffany® Setting) 링.

© sponsored by TIFFANY & CO.

# super Moonwatch

지금의 오메가를 존재하게 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피드마스터 문위치(Speedmaster Moonwatch). 1969년 7월 21일 02:56 GMT, 인류 역사상 달에 첫발을 디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기에, '문위치'로 더욱 유명한 이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은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이 탐사할 때 그들의 손목 위에 채워졌다. 당시에 붙은 닉네임 '문위치'가 현재는 모델명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았다.



## 인류의 우주 역사와 함께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위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위치의 역사는 그 어떤 시계의 역사와 견주어도 독보적이다. 인류 역사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스피드마스터는 인류가 처음 달에 착륙하기 이전, 이미 1957년 오메가가 첫발을 보인 시계다. 당시 다이얼 디자인은 자동차 계기판에서 착안했으며, 타키미터 스케일을 다이얼에서 배열 위로 옮긴 최초의 제품이었다. 이 타키미터 배열은 스피드마스터의 큰 특징이며,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도 모든 스피드마스터에 탑재되어 있다. 이후 1961년 소련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비행에 성공한 이후, 같은 해 5월 25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NASA 달 착륙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그리고 1965년 3월 1일, NASA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우주 작전에 투입할 유일한 시계 브랜드로 선정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세계업계를 놀라게 한다.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과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달 표면 착륙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 결을 지킨 것이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인 것. 영하 50℃와 영상 100℃를 오가는 극한의 온도, 지구 중력의 6분의 1에 불과한 달의 중력에 적응해 정상 구동하며 인류의 역사에 동참했다. 우주에서 사용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오리지널 문위치는 시계의 다이얼이 깨지거나 부서져도 날카로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는, 저항력이 높은 헤켈라이트 크리스털을 사용한다는 것도 우주인을 위해 고안한 특별한 점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시계가 손상되어 조각이 날리더라도 우주 비행을 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재를 선택한 것. 특히 영화로도 잘 알려진 아폴로 13호의 조난 사고 당시 전기와 동력이 모두 끊긴 기체에서 1초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지구 대기권 진입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썼다. 결국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는 우주인 3명의 생명을 구해낸 타임피스로서 NASA가 우주 작전에 가장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스누피 어워드(Snoopy Awards)를 수상하며 이 위대한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지금도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한정판 제품이 스누피가 등장하고, 이 멋진 리미티드 컬렉션은 곧잘 품절되곤 한다. 달 착륙 당시 오리지널 모델에 사용한 칼리버 1861 무브먼트와 클래식한 디자인, 아방 인텍스와 아방 시젯바늘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만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국 스피드마스터는 우주선 계미니 3호에 처음으로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우주 작전의 공식 타임피스로 사용되고 있다.

## 온라인 한정 스피드 투즈데이의 놀라운 성취

크로노그래프에 열광하는 애호가들을 위해 글로벌 시계 커뮤니티 프라텔로 워치(Fratello Watches)의 창업자 로베르트-장 브로어(Robert-Jan Broer)는 10년 전 오메가의 상징적인 크로노그래프를 기념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웹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는데, 그 채널이 확대되어 지난 2013년 인스타그램에도 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SpeedyTuesday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매주 스피드마스터 사진과 코멘트를 공유하며 전 세계에서 꾸준히 성장해올 만큼 이 위치에 대한 전 세계인의 두터운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오메가는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애호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스피드마스터에서 가장 사랑 받았던 디자인과 기능 중 일부를 혼합한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이 시계는 오메가 최초로 온라인 독점 판매할 계획으로 더욱 기대를 모았었는데, 출시하자마자 4시간 15분 32초 만에 2천12개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오메가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었는데,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 판매되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Speedy Tuesday'는 온라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2012년을 기념해 오직 2천12피스만 한정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타임피스는 스트랩 코리에 #SpeedyTuesday 문구를 새긴 블랙·화이트 나토 스트랩과 특별한 가죽 시계 물체에 담아 배송하며, 스트랩 교체 도구도 함께 구성했다. 오직 예약만으로 판매하는 2천127피스 모델 중 고객이 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을 견인했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1 문위치에 실감나는 달의 모습을 표현한 문위치 문위치 크로노그래프 44, 25mm. 2 오메가의 가장 상징적인 시계 라인인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문위치 42mm. 가장 기본형 디자인이다. 3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과거 출시되었던 모델을 한자리에 모은 기념 오메가. 4 지구에 불사제한 견고한 스텔을 신시너 만든 그레이트 사이드 오브 더 문위치 44, 25mm. 5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6 한정판으로 출시된 리미티드 품종을 기념한 스피드 투즈데이. 7 달 착륙과 오메가의 긴밀한 관계는 시계 역사에 엄청난 진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마스터 문위치라는 기념비적인 워치 컬렉션을 남겼다.



© sponsored by OMEGA

# the sparkle of a Diamond

아름다운 웨딩 링을 선택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퀄리티 높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주로 잘 알려진 타사키(TASAKI)는 다이아몬드에서도 명망이 높다.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에 품겨 있는 디자인을 더한,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한국, 일본의 유일한 다이아몬드 사이트홀더, 타사키(TASA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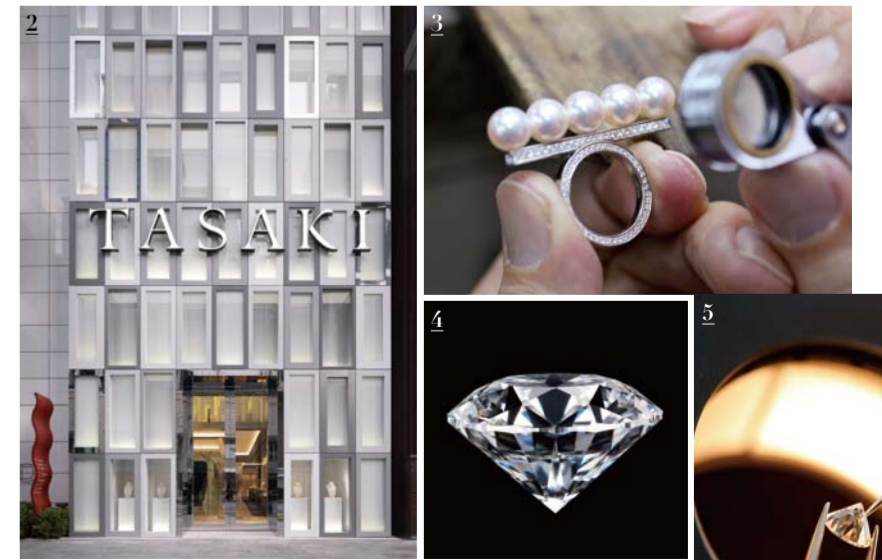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웨딩을 빛내주는 아주 특별한 증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수많은 브랜드와 판매처가 있기에 어떤 곳에서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타사키(TASAKI) 매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사키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감별 능력과 연마 기술을 소유한, 최상의 원석을 취급하는 사이트홀더 자격을 갖춘 특별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사이트홀더'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물론 마케팅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한국, 일본에서 유일한 사이트홀더인 타사키는 1994년에 자격을 취득한 후 고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매입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홀더 자격은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 회사만 부여받았을 만큼 까다롭게 선정된다. 타사키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컨트롤한다는 것. 타사키를 대표해 전 세계에서 직접 원석을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이안타라고 한다. 두터운 신용이 뒷받침되는 다이아몬드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뛰어난 감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다이안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60만 개가 넘는 원석을 보고 구입해온 타사키의 다이안타 에비스타니 마사노부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 기적의 빛을 담은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진주로 유명한 타사키는 자사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진주 생산 능력과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감정부터 연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다룬다는 것은 타사키의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교한 커팅. 다이아몬드는 숙련된 기술과 감성을 소유한 크라프트맨(공예가)이 완성한, 완벽하면서도 영원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사키의 모든 원석은 숙련된 기

술을 갖춘 장인이 정교한 커팅을 시행함으로써 영원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까지 'very good'도 뛰어났다고 할 만큼 다이아몬드 업계에서는 정교하게 세공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졌으나, 타사키는 그 위 단계인 'excellent'라는 기준을 제시할 만큼, 다이아몬드의 기준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평생을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걸맞는 최상의 퀄리티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웨딩 링을 원한다면 타사키가 좋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타사키 부티크는 현대백화점 본점·대구점·판교점·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경기점·센텀시티점·대구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1 (왼쪽부터) 부티크로 꽃집을 연상케 하는 곡선이 아름다운 18K 사쿠라 골드(SAKURAGOLD™) 라벨로 솔리터 링과 라벨 부티크 옆에 다다이아몬드를 품은 감성 있는 바운딩 솔리터 링, 파노라마 견본함 디자인인 파노라마 18K 사쿠라 골드(SAKURAGOLD™) 솔리터 링, 브랜드를 대표하는 피아페터 솔리터 링, 꽃병오가 피아페터는 모음을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인클루드 링. 2 일본 간지워워 타사키 플래그십 스토어. 3-5 최고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직접 구입하고 커팅과 연마, 판매까지 모두 담당한다는 것이 타사키의 놀라운 장이다.



© sponsored by TASAKI





# an absolute masterpiece

숙면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는 것이다. 여기, 천상의 편안함을 선사해줄 시몬스(SIMMONS)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을 눈여겨보자.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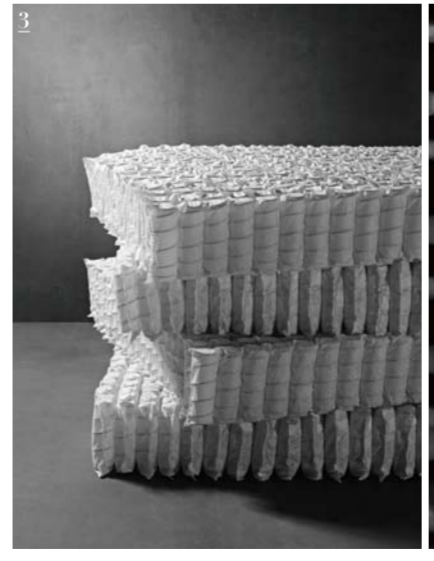
**한국 시몬스의 철학과 자부심을 오롯이 담아낸 마스터피스, 뷰티레스트 블랙**  
 포시즌스와 서울신라호텔, 반얀트리, W, 롯데호텔과 같은 글로벌 특급 호텔에서 시몬스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이를 안다면, 시몬스의 가치에 더욱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일생에서 질적으로 풍족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데 양질의 수면을 좌우하는 침대, 즉 매트리스는 더욱 중요하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고, 누웠을 때 온몸에 파고드는 천상의 편안함을 선사해줄 진정한 하이엔드 매트리스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단연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선보이는 최상위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이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다양한 가격대와 천차만별의 소재, 복잡한 기술력을 지닌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에서 론칭과 더불어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으로, 시몬스의 침대에 대한 오랜 장인 정신과 노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마스터피스 컬렉션이다. 하이엔드 매트리스 뷰티레스트 블랙은 디자인과 소재, 기술력 등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은,

시몬스의 독보적인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를 집약한 걸작인 것이다. 최상위 컬렉션답게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매트리스 디자인과 차별성을 두었다. 아르데코 열풍이 한창이던 1920년대 상류사회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별도의 베딩 커버를 씌우지 않고도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매트리스 디자인을 완성한 것. 이에 걸맞은 아르데코 예술 양식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담아낸 완단과 최고 퀄리티 프레임의 조화는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아름답다. 그도 그럴 것이 뷰티레스트 블랙은 벨기에에서 수입한 최고급 완단과 이탈리아산 포켓 부직포, 영국에서 만든 마이크로 포켓스프링과 네덜란드산 캐시미어 패딩 등 최고급 소재만 엄선해 사용했기 때문. 하지만 시몬스 최상위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다. 매트리스의 가장 중요 요소이기도 한, 시몬스만의 독보적인 매트리스 설계 시스템도 눈여겨볼 만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일어났을 때 몸이 बे기 는 느낌을 받거나, 밤새

뒤척이느라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매트리스의 지지력과 탄성력에 영향을 주는 스프링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옆 사람의 뒤척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과 세련된 편안함을 선사한다. 이는 오직 이 컬렉션만을 위해 고안한, 삼중 나선 구조의 캐시미어 코일로 이루어진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포켓스프링은 스프링 하나하나를 이탈리아산 특수 커버 안에 넣어 독립된 지지력으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하도록 설계된 기술력을 말한다. 그 때문에 스프링 강선이 하나의 판 형태로 엮여 있는 오픈스프링보다 지지력과 탄성력이 우수하고 세밀해 흔들림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또 실크와 캐시미어, 리넨 등 약 50종의 엄선된 프리미엄 소재를 결합한 레이어링 구조,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체형과 무게중심을 고려해 포켓 스프링을 조합하고 배열하는 조닝 시스템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매트리스를 구현해냈다. 그 뿐 아니라 국내 자체 생산하는 시몬스의 모든 매트리스는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사실 시몬스만의 1천9백36가지 품질 관리 항목은 국가 공인 기준보다도 까다롭다고 평이나 있기에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1870년부터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작은 것 하나에도 기본을 지키는 고집과 시몬스의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은 다시 한 번 최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수면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시몬스의 역사**  
 단지 고가의 매트리스라고 해서 숙면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선 바른 식습관이 기본이 되는 것처럼, 양질의 수면을 위해선 바로 기본에 충실한 매트리스를 만나야 한다. 1870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시몬스의 고민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천상의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시작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시몬스는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 기계로 특허를 취득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침대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시간이 갈수록 시몬스의 가치가 더해지는 이유는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오랜 열정과 노력이 깃든 그 자산을 통해 배우고 새롭게 성장해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뷰티레스트 블랙도 이러한 브랜드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인생에서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올 것이다.  
 문의 1899-8182, www.simmons.co.kr 에디터 **이재민**

1,5 고급스러움을 담아낸 최고급 자카드 완단의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데코라 매트리스와 최고 퀄리티의 완단 프레임의 조화가 돋보이는 뷰티레스트 블랙 B3 시리즈. 2 럭셔리한 비크로스 자카드 완단을 사용해 상쾌하고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보온성을 제공하는 뷰티레스트 블랙 데코라 매트리스. 3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체형과 무게중심을 고려해 포켓스프링을 조합하고 배열하는 조닝 시스템. 4 삼중 나선 구조의 캐시미어 코일로 이루어진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



● sponsored by SIMMONS

# a deep Forest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깊고 묵직한 향을 남기는  
우디 계열 향수는 한번 맡으면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이다. 거칠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따스한 면을 지녀 더욱 관능적인 우디 계열의  
딥 퍼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옛날은 허미세스**  
다 우디 20세기 초 아메리칸 사투를 탐험한 최초의  
여성, 거트루드 벨의 강아지와 모험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우디 컬렉션. 영국 하이엔드 니치 향  
수 브랜드 에킨스에서 선보이는 향수답게 어디에도  
미치지 못할 듯하고 고급스러운 향이다. 우이하  
면서도 내추럴한 타피시 로즈의 이국적인 사프란, 깊  
고 풍부한 우디 에센스가 조화를 이룬 사투에 빈 이름  
다운 한 송이 장미의 강렬함을 표했다. 100ml 30  
만천원, 문의 080-800-8809

**톰 폼드 베네티안 베르가모트** 디자인 톰 폼드가 이  
탈리아를 여행하며 받은 에너지를 한 병의 향수에 담  
았다. 향의 가족으로 불리는 베르가모트 아메리칸이  
남부 지방의 청량한 시트러스 향과 북부 지방의 풍부한  
플로럴, 그리고 묵직한 향과 렉서리한 우디 향이 어  
우러져 관능적인 우디향을 강조했다. 50ml 27만원,  
문의 02-3440-2750

**에르메스 갈롭 데르메스** 안전정을 우회하고 현대적  
으로 재해석한 보틀안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이 향  
수는 장미의 풍부한 향을 부각해 다소 묵직한 우디와  
가족 향을 여성스럽고 깨끗하게 풀어냈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향수답게  
보틀 상단에 동자 끈을 연상시키는 카죽끈을 액세서  
리처럼 묶을 수 있는 점 역시 스타일리시한 포인트  
다. 50ml 34만원, 문의 02-310-5174

**르 리브 샹탈 33** 전설적인 사제의 아이튠인 말보로  
백에서 영감을 받은 선유향하고 스모키한 마스크 향  
이 돋보이는 향수. 르 리브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남성적인 카리시마가 느껴지지만 남성 고  
개보다는 오히려 중성적인 향을 선호하는 여성 마  
이향이 더 두꺼운 장조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향  
이다. 스모키한 우디 향, 가족 향이 행도는 마스크 노  
트에도 부드러운 아이리스, 바이올렛 꽃 향이 조화를  
이루어, 처음엔 강렬한 나무의 향이 표감을 스치지만,  
시간이 지남수록 깊도는 진원은 캐시미어 니트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100ml 34만5천원, 문의 02-  
3440-2591

**매종 프란시스 카칭 크림 수와** 젊은 아들이 내린 선  
강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나는 별빛이 반짝  
이는 황홀한 파리의 밤거리에서 영감을 받은 우디 오  
리엔탈 향수. 따뜻한 부드러운 베르가모트, 롱카 빈,  
바닐라 향과 함께 시스투스 라다디노 고구마의 깊은  
어두움을 담았다. 한껏 멋지게 드레스업한 특별  
한 저녁에 뿌리면 좋은 관능적인 향이 매력적이다.  
70ml 29만5천원, 문의 02-514-5167

**바이레도 앤제임스** 오리지 브랜드 이름인 적힌 빈 라  
벨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향수는 향기는 매우  
주목적이란는 점에 국한해 익명으로 제작한 제비  
스톰리를 지녔다. 그로인 이름에 대한 신연과 없이  
오로지 향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  
다. 핀크 페퍼의 특 쓰는 첫 향을 시작으로, 미들 노  
트인 부드러운 라시 바이올렛 향, 베이스 노트인 파  
우더리한 발상 우디 향이 조화를 이뤄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중성적인 향을 발산한다. 100ml 29만원, 문  
의 02-3479-1688

**보테가 베네티안 파르코 팔라디انو V** 16세기 르네상  
스 시대의 저명한 아메리칸 건축가 중 한 명인 안드  
레아 팔라디오의 건축물과 그가 무인 정원에서 영감  
을 받은 보테가 베네티안 하이엔드 퍼퓸 컬렉션. 나무  
가늘어진 길을 따라 그들이 드리워진 허브 향을 산  
책할 때 국물을 스치는 스카시타고 강렬한 허브와  
나무의 향을 담았다. 보테가 베네티안의 우월 모티브를  
대한 아름다운 보틀부터 안에 담긴 스토리, 한번 맡  
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하고 독특한 향이 단연 보테가  
이다. 100ml 37만원, 문의 02-6824-6672

**클린 테라 우디** 톰 노트엔 베르가모트, 데올리, 미  
들 노트엔 제비꽃, 재스민 싹, 로즈넛, 베이스  
노트엔 마스크, 롱카 빈, 바닐라를 더해 싱그러움 나  
무의 향을 재현했다. 맑은 자연의 향기가 온몸을 감  
싸는 듯 시원하고 깨끗한 첫 향과 부드럽고 따뜻한 우  
디가 만나 햇살 좋은 날,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산책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100ml 11만9천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권유진



# an elegant Figure

제품을 통해 가치관을 드러내고, 균형 잡힌 피부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인텔리전트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Aesop)의 신제품,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크림'은 이 독보적인  
브랜드를 풍부하게 경험하기에 아주 좋은 선택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는 뷰티 브랜드, 이솝(Aesop)  
간결하고 정갈한 갈색 유리병, 꼭 필요한 성분만 적혀 있는 차별한 패키징, 조용하지만 파워  
풀하게 존재감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이솝은 삼중동, 한남동, 가로수길 등  
에 자리 잡은 시그니처 스토어는 물론 고유의 오라를 드러내기 어려운 백화점 매장에서도 선  
명한 이미지로 신중하고 자적인 분위기를 각인시켰다. 최근 페이스 제품을 넘어 다양한 메스  
지를 담아 라이프스타일적인 감각을 보여준 브랜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솝은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스킨케어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오리지 제품의 특성을 적은 라벨만 싼물하게 부  
착한 이솝의 갈색 보틀에는 간결한 피부를 위한 뛰어난 성분뿐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와 철학  
이 담겨 있다. 1987년 호주 멜버른 출신의 창립자 데니스 파피티스(Dennis Paphitis)는 자  
신의 헤어 샵에서 사용하던, 화학물질로 발백이 된 헤어 제품에 염증을 느끼고 간결하고 진  
실한 메스지가 담긴 이솝 우회에서 영감을 얻어 이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솝이 정제된  
스타일로 유지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다. 화장품 원료 공급자에게 까다로운 기준과 미션을  
요구하고 동을 실험을 하지 않으며 패키징 역시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다. 또 고객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와인 한잔을 권하는데, 이는 단지 제  
품 구매만 권하는 여타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이솝 매장에서 고객에게 이솝타와 앉  
을 자리, 그리고 일을 거리를 권하는 이유도 이러한 브랜드 철학에 기반한다. 지상과 존중,  
성실함과 열정, 우수함을 추구하는 기준과 새로운 발상,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의 가치  
관은 니컬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다. 크게 소리치며 존재를 알리는 대신, 오로지 정직하고  
좋은 제품을 필두로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는 이솝은 피부를 아낌없이 간강하  
게 유지하는 법을 연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  
적이고 자적인 브랜드다. 그런 이유로 창립 30년이 지난지만 변함없는 모더니티로 뉴욕, 도  
쿄, 런던 등 세계적인 대도시는 물론 서울에서까지 특별한 이미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피부를 사로잡는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크림  
매력적인 브랜드 철학만큼이나 풍부한 텍스처를 담고 있는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  
럴 하이드레이팅 크림. 이미 클렌징 오일과 페이스 토너, 아이크림, 세럼 등으로 구성된 파슬  
리 씨드 라인에서는 이솝을 대표하는 스킨케어 컬렉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항산화 성분  
이 가득 담긴 파슬리 씨드 추출물이라는, 이미 2011년부터 이솝의 대표 제품으로 오랜 사랑  
을 받은 핵심 성분이자 더욱 믿을 만하다. 특히 도시인의 건조한 피부에 스킨케어에 도움을 주  
기 위해 만든 항산화 제품인 만큼 건조함과 피부 영양 부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도  
움을 준다. 올해 이 라인에 추가된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크림은  
보습과 영양을 독특한 질감과 함께 풍부하게 전달하는 항산화 크림으로, 우이하고 풍부한 사  
용감만으로도 기준이 까다로운 뷰티 전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다. 이솝에서 엄선했  
담은 성분도 매력적이다. 화이트 티, 로즈 톱, 토코페롤 등을 절묘한 배합으로 담아냈다. 여  
기에 이온도 오일과 시아바타라는 클래식한 성분까지 더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  
고 라벤더 오일이 피부를 더욱 유연하게 한다. 얼굴에 처음 닿는 순간에는 부드럽게, 전체에  
피부를 때는 도통하게 느껴지는 풍부한 재질이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은 듯 얼굴 전체를 감싸  
고, 마지막에는 물방울이 맺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전천후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 이 크림  
을 바른 후 얼굴 전체에 느껴지는 팽팽함과 깊은 보습감은 겨울철 피부가 경험할 수 있는 큰  
기쁨이다. 지금 당장 기미와 주름을 없애고 목소리를 높이는 광고에 지겨웠던 적은 없는지.  
치분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화장대와 욕실을 오랫동안 지켜온 특별한 브랜드, 이솝은 자신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직 우리 앞에 남은 작은 계절, 이솝의 섬  
세하고 서려 깊은 샤스 속에서 신제품 크림의 우아한 매력을 체험한다면, 이 유니크한 브랜  
드의 가치를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 특별한 경험에 동참하고 싶지 않거나, 60ml 9만  
5천원, 문의 1800-1987 에디터 권유진



## SPECIAL EVENT COUPON

### 〈스타일 조선일보〉와 이솝이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이솝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신제품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크림(7.5ml)을 드립니다.

- ◆ **중점점**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럴 하이드레이팅 크림 7.5ml(5만 채점) + 이솝 회원 신규 가입 시 비디 클렌징 슬러프 45g 추가 증정
- ◆ **기간** 2017년 2월 1일(수)~7일(화) ◆ **중점 매장** 현대백화점 본점(02-3438-6047), 롯데백화점 에버뉴엘 잠실점(02-3213-2054), 롯데백화점 분당점(031-738-2138),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051-745-1217), 이솝 기문수길(02-512-1987)

\* 1인 1회, 1일 30개 한정 수량 증정





